

제 7호
계명 참길

2019. 2

참길은 참스승의 길을 뜻합니다.



1899 \wedge 2012



학과장 인사말 - 박선우 · 1

학생회장 인사말 - 양예원('16) · 4

1. 2018년 되돌아보기

1) 함께하는 행사 / 편집부 · 9

2) 춘계 학술세미나 소감문 / 정유진('18) · 23

2. 학술연구반 활동

1) 의사소통교육연구반

• K-Circle <토토즐> / 이채은('17) · 29

2) 고전문학교육연구반

• 독서토론클럽 <어울림> / 전시영('17) · 32

• K-Circle <계·대·역> / 박지은('17) · 35

3) 현대문학교육연구반

• K-Circle <소확독> / 문수민('17) · 38

• K-Circle <갑분독> / 윤다솜('17) · 40

4) 국어교수법연구반

• K-Circle <학구열> / 정승호('18) · 43

3. 학술기행 보고서

1) 춘계 학술기행 소감문 / 김선영('16) · 47

2) 의사소통교육연구반 / 김민경('16) 외 · 51

3) 고전문학교육연구반 / 이승지('16) 외 · 76

4) 현대문학교육연구반 / 윤다솜('17) 외 · 104

5) 국어교수법연구반 / 황예서('17) 외 · 131

4. '돋을별' 학술제

1) 제6회 돋을별 학술제 소감문 / 유민환('14) · 155

2) 논리적 글쓰기 경연대회 수상작(최우수상) / 정민지('18) · 159

3) 국어교육과 수업실연대회(최우수상) / 사범대학 발표대회(우수상)
화법 영역 수업 지도안 / 이선윤('16) 외 · 161

5. 학교 현장 탐방 보고서

1) 심인고등학교 수업 참관 보고서

김하정('15), 김민경, 김선영, 정현지('16) · 167

2) 좋은 수업 나눔 워크숍 후기 / 남기범('13) · 178

6. 자유발언대

1) 신입 학생회장 인사말 / 이기홍('15) · 183

2) 교육실습 후기 / 고윤정('15) · 185

3) 계명 전공 글로벌체험학습 후기 / 김민경('16) · 189

4) 20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 합격 수기 / 김유진('12) · 195

변지희('12) · 198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해적이 · 203

졸업생, 입학생, 편집위원 명단 · 205

숨 가쁘게 달려온 2018년을 되돌아보며

국어교육과 학과장 박선우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는 학과지 『참길』의 일곱 번째 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은 ‘개강총회와 종강총회, 춘계/추계 학술세미나, 교원임용준비 및 전공 특강, 교육실습 환송회와 평가회, 돈을별 학술제’ 등과 같은 학과의 연간 사업은 물론 단과대학 차원에서 진행된 ‘태산준령 비사 도약 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예비교사로서 국어교육과 재학생들이 전공 능력을 강화하고, 국어교육 및 인접 분야,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지 않은 학과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중복하여 참여하느라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창과 이래 국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임용 공채시험에 동시에 합격생을 배출하였으며, 태산준령 사업을 통하여 학과의 재학생들이 창의적 국어교육 전문가의 역량을 키우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학기 교육실습을 나간 24명의 재학생 가운데 무

려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실습생들을 대표하여 연구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평상시 국어과 영역의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수업의 설계와 운영에도 집중하여 교사로서의 실질적인 능력을 수련해 온 결과로서, 결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립된 학과의 훌륭한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참길』 7호를 통하여 지난해, 학과의 활동에 대한 공과를 성찰하고 학과 구성원들의 소감을 살펴본 결과, 2018년은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으나 모든 학과의 구성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과의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전진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재학생과 교수진, 조교는 물론 학과 행사에 참석해 준 졸업생들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열의를 갖고 2018년에 진행되었던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가오는 2019년에도 학과장으로서 신뢰와 소통의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과 모아 학과의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2018년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의 리더십으로 학생회를 이끌어준 양예원 학회장과 학생회 임원들, 학과의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학년 대표와 학습동아리 대표들, 그리고 2018학년도 국어교육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학과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수합부터 인쇄와 출판까지 방학을 반납하고 학과지의 제작을 위하여 수고해 준 정현지, 황예서, 유선우 편집위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고 소멸되는 순환 주기가 짧아지면서, 우리가 상상해 왔던 미래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에 머물기보다는 창의와 융합을 통하여

2 학과장 인사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된 교육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국어교육과의 구성원들이 ‘국어교육’이라는 전공과 ‘국어교사’라는 목표 안에서, 자신만의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꾸준히 계발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빛으로 증만했던 소중한 한 해

양예원('16)

유난히 짧았던 한 해가 지나고, 매서운 추위 속에 학과지 참길 7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해 '계명 참길'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과만의 특색 있는 활동이라 이 학과지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학과지를 여는 인사말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학우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학생회는 작년 2월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을 시작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춘계학술세미나, 교육실습 환송회 및 평가회, 스승의 날 행사, 추계학술세미나, 국어교육과 학술제, 전공특강 등 계절이 바뀌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덕분에 모두에게 알찬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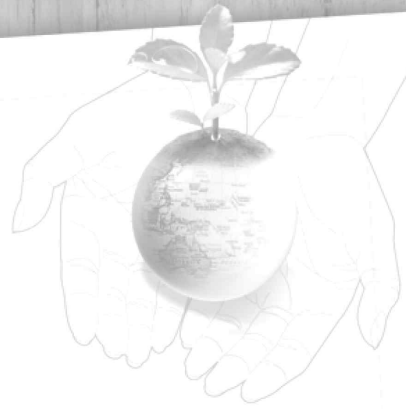
처음 학생회 임원들과 합을 맞출 때, 많이 뼈격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영부영 서로의 패턴을 맞춰보다가 개강을 맞이하게 되었고, 3월 한 달은 항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힘들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넘치는 열정으로 모든 것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하려 했기 때문에 쉽게 지쳤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착오의 과정을 겪은 뒤, 저는 모든 것을 저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듣고, 서로를 배

려하고자 했습니다. 타인의 생각이 자신과는 달라도 서로 이해하자고 다독였고, 업무를 더욱 체계화해서 부서별로 분담해 일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회 모두 부족한 미생이었지만, 학생회 임기가 끝난 뒤, 저희는 여러 방면으로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학과장 박선우 교수님을 비롯한 김지은, 이영호, 손예희, Uliana Kobyakova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학생회장이었지만, 1년 동안 늘 믿고 따라와 준, 항상 최고의 학생회장이라고 이야기 해 준 2018년 학생회에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국어교육과의 학생 대표로서 모든 학우들께 만족을 드리진 못했지만,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도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긴 인사말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를 어떤 색으로 채우셨나요? 작년 학과지 참길 6호의 신임 학생회장 인사말에서 모두에게 2018년이 어떤 한 해로 남을지 기대가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알록달록한 혹은 얼룩덜룩한 색으로, 누구는 밝은 색 혹은 탁한 색으로 한 해를 채우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작년 한 해를 얼룩지게 채웠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모두 끝마치고, 뒤돌아보니 그 많던 얼룩들도 다 빛이 나는, 좋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만큼 후회 없고, 제 마음 한편에 소중한게 새겨질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2018년도 부디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9년에는 더욱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올해 역시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색으로 한 해를 꾸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곁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되돌아보기**

2018년 되돌아보기

함께하는 행사

○ 국어교육과 제3회 졸업식 (2018.2.20)



2017학년도 전기 사범대학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대학 생활 4년을 마무리하는 날만큼 많은 사람들이 졸업생에게 축하를 보내며 밝은 앞날을 기원하였다.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8.2.23)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국어교육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처음으로 18학번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계명대학교와 사범대학, 교직원, 학생회 소개, 그리고 4년 동안 경험할 사범대학의 교직 이수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후 학과별로 마련된 장소에서 국어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신입생과 재학생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1학기 개강 총회 (2018.3.13)



1학기의 시작을 알리고, 사범대학 1학기의 행사 및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전 학년이 모여서 1학기 행사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았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문을 해소했다.

○ 춘계 학술세미나 (2018.3.23~3.24)



3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경상북도 청도에서 1박 2일의 춘계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첫째 날에는 체육대회와 숙소에서 조별 경기와 게임을 하면서 선후배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청도 운문사를 견학한 이후 귀가하였다.

○ 임용시험 준비 특강 (2018.4.18)



2018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다사중학교 이지현 선생님께서 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셨다.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부법, 참고해야 할 책 등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 교육실습생 환송회 (2018.5.3)



4학년 선배들의 교육실습을 응원하기 위해,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다 함께 준비한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성공적인 교육실습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 교육실습 평가회 (2018.6.5)



교육실습을 다녀온 4학년 선배님께서 현장 수업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하고, 교육실습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실습 평가회를 통해 강의를 통하여 배웠던 국어교육의 이론들이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었고, 선배들은 교육실습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학교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배운 가치 있는 경험들을 전수하였다.

○ 국어교육과 전공특강 1 (2018.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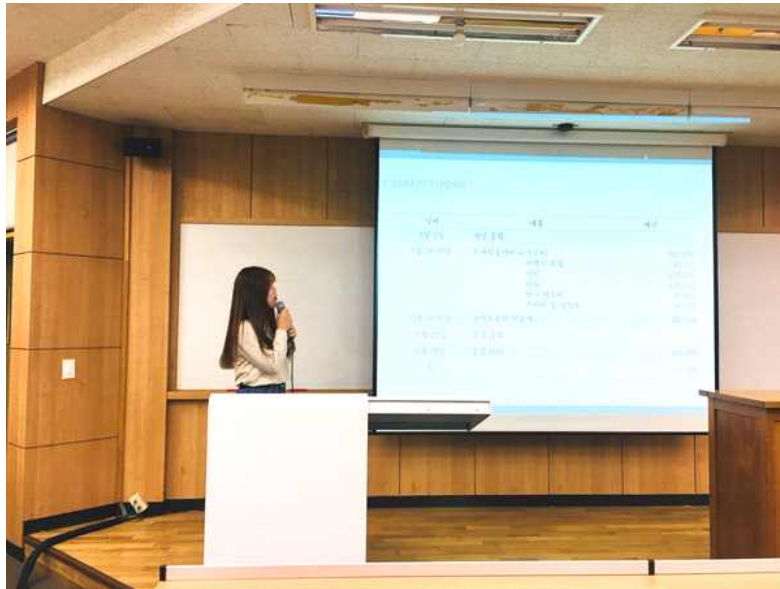
태산준령 비사 도약 사업 가운데 수업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전과 학교등학교의 황인정 선생님께서, 융합교육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셨다. 실제 과학고등학교 국어과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융합교육의 장점과 특징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8.8.25)



유난히 무더웠던 8월에 2018학년도 후기 사범대학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국어교육과에서는 박정봉('12), 이경화('15), 이나희('15) 3명의 선배가 졸업을 하였다. 대학생활 4년을 마무리하는 날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졸업생에게 축하를 보내며 밝은 앞날을 기원하였다.

○ 2학기 개강총회 (2018.9.7)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국어교육과의 2학기 사업 계획과 예산을 안내하는 총회가 개최되었다. 국어교육과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명을 듣고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졌다.

○ 추계 학술기행 (2018.9.28~9.29)



추계 학술세미나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학교에서 ‘의사소통교육연구반, 고전문학교육연구반, 현대문학교육연구반, 국어교수법연구반’으로 구성된 학술동아리가 1학기과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진주의 이병주 문학관도 방문하였다. 둘째 날에는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성을 견학하고 귀가하였다.

○ 국어교육과 전공특강 2 (2018.10.11)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임걸 교수님께서 국어교육과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셨다. 미래에 어떤 방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새로운 교육의 매체와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6회 돈을벌 국어교육과 학술제 (2018.10.31~11.1)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제6회 돈을벌 국어교육과 학술제가 있었다. 돈을벌 학술제는 TBC 대구방송 황재섭 프로듀서의 특강과 논리적 글쓰기 경연 대회, 수업실연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황재섭 프로듀서의 특강은 'PD가 말하는 방송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논리적 글쓰기 경연대회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논제로 진행되었다.

○ 2학기 종강총회 (2018.12.21)



학기 마지막에 국어교육과 전 학년이 모여서 1년 동안 했던 행사와 사업을 돌아보며, 그에 따른 비용을 결산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학 후, 첫 학술세미나

정유진(18)

3월 23일, 국어교육과 춘계 학술세미나를 가는 날이다. 장소는 청도였다. 예전에 가족들과 한번 가본 장소여서 낯설지만은 않았다. 학기 초라 아직은 어색한 동기들과 함께할 생각에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웃고 떠드니 분위기는 한층 좋아졌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들을 풀고 음식들을 나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이름도 맞추고, 여왕 피구, 미션 달리기 등 여러 가지 게임들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배님들과 점점 친해지니, 게임들이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렇게 체육대회가 끝났을 무렵 서로를 알게 되니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다.

체육대회를 무사히 끝내고 다 같이 저녁으로 칼국수와 비빔밥을 먹었다. 신나게 놀고 저녁을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숙소로 돌아와서 간단히 휴식시간을 가졌다. 휴식시간에는 동기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대학교에 들어오고 난 후의 이야기, 학식에 관한 이야기, 대학로 맛집 이야기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신나게 웃고 떠들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다보니 어느덧 지도교수님과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시간이 찾아왔다. 손예희

교수님과 선후배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였다. 자기소개를 하도 많이 해서인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과대 정유진입니다. 김해시 삼계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에서 혼자 삽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였다. 교수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김해시 삼계동.. 참 구체적이네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선배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 어떤 강의가 소위 ‘꿀같은 강의’인지, 방학에는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간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시간이었다. 특히 교양 수업에 대해서 열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인상에 깊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간담회 시간도 지나고 단체로 실내에서 하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기획부에서 무려 25가지의 게임을 준비했다. 같은 학생회지만 기획부 학생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또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서 감사했다. 게임은 미니 게임 형식으로, 종목에 출전해서 이기는 팀이 점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연성 게임, 랜덤 게임, 폼으로 말해요 게임, 이구동성 게임, 과자 던져서 받아먹기 게임, 만보기 올리기 게임, 어려운 발음 게임 등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면서 단합하였다. 게임을 하면서 동기가 무엇을 잘하는 지도 알게 되었고, 선배님들이 정말 재밌고 웃기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이 끝나고 최종 우승팀 발표를 하였다. 아쉽게도 우리 팀은 뒤에서 1등을 해서 간식을 얻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간식 상품 이외에도 간식과 음료, 술이 준비 되어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동기들과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과 모여서 간식도 먹고, 술도 마시는 경험은 참 새로웠다. 진지한 이야기들도 하고, ‘주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자리도 바뀌가며 더

많은 동기들과 선배들이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놀다보니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하나 둘씩 피곤한 친구들은 자러갔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며 물 만난 고기 마냥 신나게 놀았다. 중간에 기획부에서 준비한 매점 쿠폰을 걸고 장기 자랑 형식으로 진행한 작은 이벤트도 재밌었다. 저는 어찌다보니 매점 쿠폰을 3장이나 얻게 되었고, 매우 뿌듯했다. 그러는 사이에 부엌에서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기다리던 라면이 나왔고 평생 처음 보는 크기의 냄비에 담긴 라면이 시선을 집중시켰다. 너나할 것 없이 라면으로 몰려들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새벽에 다 같이 라면을 먹으니 새로운 경험이었고, 평소에 라면을 먹을 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다. 그렇게 라면도 먹고 배도 부르니 잠이 슬슬 오는 것 같아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간단히 씻고, 이불을 깔고 바로 잠이 들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늦게까지 논 친구들은 죽을상을 하고는 누워서 뒹굴거리기도 했다. 나도 조금 더 누워서 있고 싶었지만 얼른 씻고 준비했다. 모두가 다 준비를 끝냈을 무렵 학회장 언니께서 짐을 챙기고, 방에 있는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해달라고 하셔서 다 같이 분리수거를 하였다. 아침이어서 피곤하고 힘들 법도 한데 친구들이 웃으면서 잘 정리해주어서 다행이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을 먹으러 갔다. 아침을 먹으러 갈 땐 어제와는 다르게 다들 축 처져서 눈을 반쯤 감은 채로 갔다.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도착하였고 맛있는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들을 먹으며 피로를 조금이나마 달랬다.

맛있게 아침을 먹고 청도 운문사를 갔다. 걸어가는 내내 친구들의 표정이 뭔가 알 수 없었다. 많이 피곤했나보다. 운문사를 가는 길이 너무 예뻐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냥 가슴이 확 뚫리

는 느낌도 들었다. 나무들도 많아서 공기도 좋았고, 가는 길에 보이는 계곡의 물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 몸이 시원한 느낌이었다. 걸어가다 보니 돌로 탑을 쌓아 놓고 간 흔적이 곳곳에 보였고, 나도 돌을 올리고 소원을 빌었다.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겠지만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원은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운문사에 들어가기 전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갔다.

나는 운문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처진 소나무이다. 소나무의 한 품종인 처진 소나무로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 소나무는 다른 소나무와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둥글게 자라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모양이 둥글둥글 아주 아름다웠고, 소나무에서 엄청난 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소나무의 나이가 500여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한 번 놀랐다. 소나무도 보고 운문사 내의 여러 장소들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운문사 탐방이 끝나고, 버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가벼웠다. 버스에 도착해서는 너무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뜨니 동영관 앞에 버스는 도착해 있었다. 마지막은 피곤했지만 선배들과 동기들, 교수님들과 다 함께한 활동이어서 의미가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은 학술세미나였다.

학술연구반 활동



K-Circle <토토즐>

이채은(17)

지도: 이영호 교수

팀장: 김민경(16)

팀원: 김경민(13), 이기홍(15), 김지우, 성일주, 이윤조(16),

김예지, 이제니, 이채은, 정혁진(17)

주혜원, 안시현, 유민호, 이수성, 정유진(18)

의사소통연구반은 이영호 교수님의 지도 아래 3학년 김경민, 김민경, 김지우, 성일주, 이윤조, 2학년 김예지, 정혁진, 이기홍, 이제니, 이채은, 1학년 정유진, 주혜원, 안시현, 유민호, 이수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반은 토론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하여 직접 토론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신광재 외, 창비, 2011)라는 책의 목차에 나오는 각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년별로 정리해 발표 후,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도서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3부 토론 기록표에 나온 논제를 대상으로 토론 실습을 진행하여 실제로 토론을 수행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반은 2018년 1학기에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활

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주의 발제자 한 명이 발제문을 나눠주고 미리 준비한 발제를 끝마치면, 나머지 반원들은 발제문 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발제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수님의 설명을 덧붙여 들으며 토론의 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실제로 책상을 돌려서 토론 대형을 만들어 반대 신문식(CEDA) 토론 유형을 사용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의 사회자는 교수님이 도맡아주셨고, 일주일 전에 미리 정해놓은 주제와 찬성 측/반대 측 토론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직접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반원들은 토론을 참관하며 각각의 토론자들을 평가지에 평가함과 동시에 좀 더 토론의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측에 투표하는 등 청중 역할을 통해 토론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실제 토론 대회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막에 청중의 평가에 따라 승자 측을 가려내었고 모든 반원이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청중에게 소감을 들으면서 점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으며, 이와 같이 진행한 토론 실습을 통해 토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8 추계 학술세미나 발표를 통해서도 토론의 여러 절차와 유형을 알아볼 수 있었고, 활동했던 토론 실습 내용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의사소통연구반은 토론이 아닌 또 다른 다양한 실습을 통해 교사 생활의 발돋움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독서토론클럽 <어울림>

전시영('17)

지도: Uliana Kobyakova 교수

팀장: 전시영('17)

팀원: 박명재('15), 진은정('17), 김은샘, 최지은, 최은수('18)



<어울림>은 Uliana Kobyakova 교수님의 지도 아래 15학번부터 18학번까지 총 6명의 학우로 이루어져 독서토론 활동을 한 동아리이다. 책을 통해 저자와 독자, 그리고 팀원 간의 상호관계를 맺으며 생각을 교류하는 등

서로 어울려 사고의 폭을 넓혀보자는 의미로 팀명을 ‘어울림’이라 지었다. 우리 팀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김만중의 <구운몽>, 그리고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었다.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총 3권의 책을 읽고 6회의 독서토론 활동을 하여 보고서와 독후감을 작성하였다.

총 6회의 토론을 하는 동안 팀원 한 명씩 돌아가며 진행자의 역할을 맡았다. 진행자는 토론의 주제를 미리 공지하여 팀원들이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해올 수 있도록 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자는 자신이 맡은 책의 작가와 줄거리를 소개했다. 그 이후에 길다고 느껴지면 길고 짧다고 느껴지면 짧은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후에는 토론 시간에 나온 주장과 이야기를 들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독후감을 쓰면서 한 번 더 작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서토론클럽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책을 읽더라도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며, 주인공의 행동이나 저자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며 책이 지어진 시대 상황 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하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 서슴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려 했고, 상대의 의견에 대해 부정하기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며 수렴하려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미리 공지한 주제에 관해서만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상정해 토의하기도 하고, 저자가 작품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자의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팀명의 의미대로 저자와도 어울릴 수 있었으며 팀원들끼리도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여럿이서 함께 책을 읽으니, 3권의 책을 모두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책을 혼자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왜 그럴까?’라며 의문은 갖고 그에 대해 나름의 답을 구하려 하지 않았는데, 독서토론클럽을 통해 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다 보니 그 의문에 대한 답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럿이 함께 읽다 보니 저자가 왜 이렇게 표현하였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이 오늘날에도 이해될 수 있는지 등 작품을 전보다 더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읽을 수 있었다. 딱 3권의 책이었지만 그 책들을 읽고 다양한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앞으로도 독서토론클럽 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참가하고 싶다.

K-Circle <계대역>

박지은('17)

지도: Uliana Kobyakova 교수님

팀장: 이정은('17)

팀원: 김혜리, 박지은, 최지연, 황예서('17)



<계대역>은 임용고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만들어진 K-Circle 동아리로, 팀원은 김혜리, 박지은, 이정은, 최지연, 황예서이다. 감사하게도 Uliana Kobyakova 선생님께서 지도를 맡아 주셨

다. <계대역>이라는 팀명은 ‘계명대에서 대한민국 역사 정복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최종 목표는 임용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3급 이상의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우리 팀은 3급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역사적 지식이 요구되는 1·2급 자격증 취득에 목표를 두어 총 10회에 걸쳐 함께 공부하였다.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은 ‘자신이 모르는 단원 가르치기’였다. 팀원 모두가 두 개의 단원을 맡아 돌아가며 한 단원씩 가르쳤다. 자신이 가르치는 단원은 자기에 가장 취약한 단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먼저 수업을 준비해 온 팀원이 30분가량 개념 설명을 하고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남은 시간은 문제집의 기출 문제를 풀고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진도를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자신이 잘 아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평소 어려워했던 부분을 가르쳐 보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사실 한국사라는 과목은 중·고등학생 때 배운 적이 있으므로 낯설지 않았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이 달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했다. 그 덕분에 학습 내용을 더 오래 곱씹어 볼 수 있었다. 또한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는 학생이 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구석기 시대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오기까지 2시간씩 10회, 총 20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완벽히 공부하는 것은 조금 촉박했다. 하지만 팀원들이 매일 얼굴을 보는 친구들이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임 시간 이외에도 서로 물어보고 또 가르쳐주며 틈틈이 공부할 수 있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K-Circle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뭉치면 쉬워진다.’였다.

임용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한국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험 요강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개념 및 전개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과 과제가 많은 학기 중에 한국사 공부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기 중에, 그것도 3급이 아닌 심화 과정 1·2급을 응시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바로 ‘함께해서’였다.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다. 같은 꿈을 가진 다섯 명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니 혼자 공부할 때의 부담은 배로 줄어들어 오히려 즐거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활동이 끝날 때 즈음 서로 간에 더욱더 끈끈한 우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비록 공부하는 시간이었지만 즐겁고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생겼다. 함께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국사 지식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2018년 2학기에 우리는 K-Circle 활동을 통해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함께해서 가능했던 그 과정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성실히 밟아나갔다. 다만 아쉬운 점은 K-Circle 동아리를 시작할 무렵 2018년도 마지막 한국사 시험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함께 모여 2019년도 시험을 준비하며 의지를 불태울 것이라 믿는다.

K-Circle <소확독>

문수민('17)

지도: 손예희 교수

팀장: 문수민('17)

팀원: 심혜정('17), 유선우, 정민지('18)



K-Circle <소확독>은 손예희 선생님의 지도 아래, 국어교육과 2학년 2명과 1학년 2명으로 구성되어, 작품 강독과 더불어 현대 소설사에 대해 공부한 학습 동아리이다. <소확독>이라는 이름은, '소소하고 확실한 독서'의 줄

임말이다. 매주 한 번씩 소소하게 모임을 가졌지만, 확실한 독서를 통해 의미 있는 학습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 현대소설이 걸어온 길』(장수익 외, 문학동네, 2013)을 중심으로, 1940년대 작품인 염상섭의 「효풍」부터 1950년대 작품인 선우휘의 「테러리스트」와 「깃발 없는 기수」, 1960년대 작품인 전광용의 「사수」와 「꺼삐딴 리」, 1970년대 작품인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80년대 작품인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과 김주영의 「천둥소리」, 1990년대 작품인 신경숙의 「외딴방」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열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매주 활동을 진행했다.

우리 학습 동아리는 현대소설의 흐름 탐구, 시대별 소설의 경향과 작품의 내용적 특징 파악을 목표로 정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 목표를 정한 뒤, 한 주에 작품 하나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회의 활동을 진행했다. 각각의 주제마다 발제자를 정하고, 매주 1회씩 예정된 모임 전에 책의 해당 내용과 작품을 읽어 오는 것으로 큰 틀을 정했다. 모임 당일에는 발표자가 준비해온 발제 내용을 설명한 뒤, 조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 설명을 듣고,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 조원 모두 내용 숙지가 잘 되어있어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소화독〉 학습 동아리 활동은 작품도 읽고, 소설사도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작품 강독을 통해 시대별 소설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보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현대소설의 흐름에 대해 공부하니 한층 더 이해하기 쉬웠다. 또한, 단순히 정해진 텍스트를 읽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설 해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K-Circle <갑분독>

윤다솜('17)

지도: 손예희 교수

팀장: 윤다솜('17)

팀원: 오하나('17), 안현선, 이지혜('18)



K-Circle <갑분독>은 손예희 교수님의 지도 아래, 국어교육과 2학년 2명과 1학년 2명으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이다. <갑분독>은 '갑자기 분위기 독

서모임'을 줄인 것으로, 많은 소설 작가 중에서도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황순원 작가의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조직한 동아리이다.

황순원은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를 사용하고 소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법 장치들을 사용하여 소설을 창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황순원은 소설 속에서 소박하면서도 치열한 휴머니즘의 정신,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에 대한 애정 등을 담아내고 있음을 소설을 읽는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여러 소설을 읽기 전에 황순원 작가의 소설 속에 담겨 있는 문체와 그가 지향했던 문학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최동호의 <황순원 문학과 인간탐구>를 읽으며 3주 동안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황순원의 소설 작품 「소나기」 이외에도 「카인의 후예」, 「독짓는 늪은이」, 「목님이 마을의 개」를 읽으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번의 활동을 하면서 3주 동안은 <황순원 문학과 인간탐구>를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읽고 그 부분을 발제한 보고서를 모이기 전날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모이는 날에는 자신이 발제한 보고서를 조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발표 이후에는 질문들을 통해 그 내용을 보충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로 그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궁금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고 그 질문도 발표자뿐만 아니라 조원 모두가 같이 고민하여 풀려고 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독서가 될 수 있었다. <황순원 문학과 인간탐구>를 다 읽고 나서는 황순원의 소설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매주 한 작품씩 읽고 줄거리와 모르는 단어, 논평을 정리해서 팀원들과 공유하거나, 소설 작품을 그냥 읽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이론, 생산이론, 수용이론, 반영이론으로 나누어 감상해 정리해보기도 하였다.

황순원의 소설과 그의 문학을 탐구해보면서 다소 책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발제를 하고 그것을 팀원들과 이야기해보고 궁금한 부분은 질문하고,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팀원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소설을 읽을 때 그냥 내용만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설을 깊이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K-Circle <갑분독> 활동을 통해서 소설사에서 한 획을 그은 황순원의 소설과 그의 문학세계에 대해 팀원들과 책으로 읽고 연구하면서 전공 학습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팀원들이 과제라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어 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K-Circle <학구열>

정승호('18)

지도: 박선우 교수

팀장: 정승호('18)

팀원: 이수진, 최유리('18)



K-Circle 〈학구열〉은 박선우 선생님의 지도 아래 1학년 3명으로 구성되어, 국어 교수법에 관한 논문을 통해 학습자 중심 국어 수업을 탐구하고 연구한 학술동아리이다. 〈학구열〉이라는 팀명은 말 그대로 ‘학습에 대한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K-Circle 활동에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임하자는 의미로 정하였다. ‘2015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의 변화를 살펴보고,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이론의 배경을 이해하고 수업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회로 활동하여 매주 두 명이 논문을 읽고 분석해 정리한 후 문법 영역 탐구학습, 교육연극, 교과 간 융합교육 등 국어교수법에 관한 여러 논문을 읽고 분석해 정리한 후 서로 설명하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로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보니 팀원 간의 소통이 잘 되었으며,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여쭙어보고, 더 쉽게 설명되는 예시나 기타 자료를 찾아보았다.

K-Circle 〈학구열〉에서 다양한 국어 교수법 논문을 읽고, 정리하고, 탐구해보며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국어 교수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기존에 있던 교수법부터 최근 생겨난 융합 교육 등의 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알 수 있었고, 또 각각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실제 수업을 해보지 않아서 수업 방식이나 수업의 실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이해했는데, 이 부분이 아쉬웠다. 다음에 또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더 가까이 활용해보고 싶다.



학술기행 보고서

추계 학술기행 소감문

김선영(16)

해마다 국어교육과는 1학기에 춘계 학술기행을, 2학기에 추계 학술기행을 떠난다. 추계 학술기행의 경우, 춘계 학술기행과 다르게 ‘추계 학술세미나’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추계 학술기행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학기 초에 조직한 학술 동아리를 기반으로 동아리별로 반년 동안 특정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어교육과 학우들은 주체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동아리의 탐구 내용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학술세미나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3학년이 되기까지, 총 두 번의 추계 학술세미나를 경험했지만, 올해는 내게 좀 더 특별했던 세미나가 되었던 것 같다. 학술부장으로서 학술세미나의 진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해 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어떡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내가 진행을 잘하지 못하여 오 분 동안 정적만이 흐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했던 것 같다. 세미나를 앞둔 일주일 동안 걱정만 하다가, 세미나 시작 전에 교수님께서 학술 세미나의 진행 방법을 알려 주셨다. 방법을 알면 긴장이 풀릴

줄 알았는데 왜인지 들은 후에 더욱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아마, 발표와는 또 다른 경험이다 보니 떨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발표는 현대문학교육연구반부터 차례로 의사소통교육연구반, 고전문학교육연구반, 국어교수법연구반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막상 발표가 시작되자 진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처음 진행을 한다는 긴장감은 잊게 되었다. 내용이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발표를 준비했을 발표자의 노력과 반년 동안 함께 열심히 내용을 탐구했을 학우들의 노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진행자가 굳이 질의를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던 학우들의 태도였다. 스스로 질문을 해주기도 했고, 때에 따라 감상을 발표하기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아마도 반년 동안 각 학술 동아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여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학술세미나가 끝난 이후, 우리는 곧바로 이병주 문학관이 있는 하동으로 이동했다. 코스모스가 유명한 하동답게 달리는 도로 주변에는 활짝 핀 코스모스로 가득했다.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들으면서 즐겁게 이동했었던 기억이 난다. 문학관은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있는 도로의 끝에 아늑한 별장처럼 지어져 있었다. 관장님의 지시에 따라 영상관으로 이동하여 약 십분 가량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는 문학관 내부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을 끝낸 후에는 약 십분 가량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학년과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고 모여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1학기에 떠났던 춘계 학술기행에서는 다소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한 학기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 괜히 뿌듯하기도 했다.

문학관 관람을 마친 후, 저녁을 먹고 우리는 곧장 숙소로 이동했다. 조금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한 학기 동안 함께 했던 학술 동아리원과 담당

교수님과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속해 있었던 고전 문학 교육 연구 반에서는 반 년 동안 수고한 모두를 격려해주고, 한 학기 동안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어떤 점이 가장 뿌듯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춘향전 한 권을 독파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독파 후 가장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그 후, 2학기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 후 학술 동아리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학술 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에는 기획부에서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다 같이 친목을 다졌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후 게임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둘째 날에는 진주성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다. 먼저 진주성 내부에 있는 진주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되었다. 진주 박물관 내에는 두암 전시실과 임진왜란 전시실이 있었다. 해설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먼저 두암 전시실부터 관람했다. 두암 전시실에는 한국의 미가 느껴지는 전시품과 동양화, 진경산수화와 같은 작품이 많았다. 두암 전시실을 둘러본 후, 임진왜란 전시실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그 당시 활약했던 장군과 관련된 것들, 문서, 서류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문서와 서류 외에도 당시에 사용되었던 자기나 공예품 또한 있었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몇몇 학우들은 사진을 찍기도 했고, 열심히 메모하기도 했다.

진주박물관을 모두 둘러본 후, 논개가 몸을 던졌던 절벽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괜히 당시 논개의 마음에 감정 이입을 하면서 그 절벽을 내려다 보았다. 그렇게 높지 않은 절벽이었지만 분명 왜장을 안고 몸을 던지게 된다면 본인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생명을 잃는 것인데 사실은 꽤 무섭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참 멋있게 느껴져 괜히 절벽을 한 번 더 내려다보

기도 했던 것 같다.

진주성 견학을 끝낸 후, 대구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컵밥을 먹으며 동기들과 함께 마지막 학술기행인데 기분이 묘하지 않으나,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찌 보면 학기 중 가장 큰 일정이 학술기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시기에 늘 있던 연례행사가 사라져 버리니 시원섭섭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나의 마지막 추계 학술기행이 끝이 났다. 그간 학술기행을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그저 지명으로만 알고 있던 장소를 나의 전공과 관련지어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동안 다녀왔던 옥천이나 남해나, 진주나 모두 내게 그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역 이름일 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나의 경험이 덧입혀지면서 좀 더 특별한 장소로 남겨지게 되었다. 언젠가 다시 그 지역들을 들리게 된다면, 이때의 추억과 이때의 배움을 다시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배움을 음미하고 싶다.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의사소통교육연구반 (지도: 이영호 교수)

김경민(13), 이기홍(15)

김민경, 김지우, 성일주, 이윤조(16)

김예지, 이제니, 이채은, 정혁진(17)

안시현, 유민호, 이수성, 정유진, 주혜원(18)

I.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1. 토론의 절차와 유형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는 논제, 찬성 측과 반대 측, 입론과 반론, 최종 발언, 확인 질문, 작전 회의, 판정 등이 있다. 이러한 기본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토론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

찬성측 입론 → (작전 회의, 확인 질문) → 반대측 반론/입론
→ 찬성측 반론 → 반대 측 반론 → 찬성측 반론 → 반대측 반론
→ 반대측 최종 발언 → 찬성측 최종 발언

토론은 그 목적에 따라 구성 요소와 절차들이 조금씩 다른 다양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모형을 토대로 시간, 목적, 참여 인원을 토론 활동 취지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의회식 토론

의회식 토론은 영국의 의회 토론에서 기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발달하여 세계적으로 각종 대회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2) 정책 결정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교차 조사 방식 토론; CEDA식)

흔히 CEDA 방식이라 불리는 이 토론 모형은 미국의 전국 토론 방식에 토론자들 간의 교차 질문을 가미하여 토론자들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토론 형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3) 프닉스식 토론

프닉스식 토론은 앞의 두 토론 모형과 달리 총 여섯 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진행하게 되며 찬성 측 입론 후 반대 측 확인 질문 전에 작전 회의 시간을 가지고,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측이 반론 및 보충 입론을 하는 형식을 받게 하여 쟁점 형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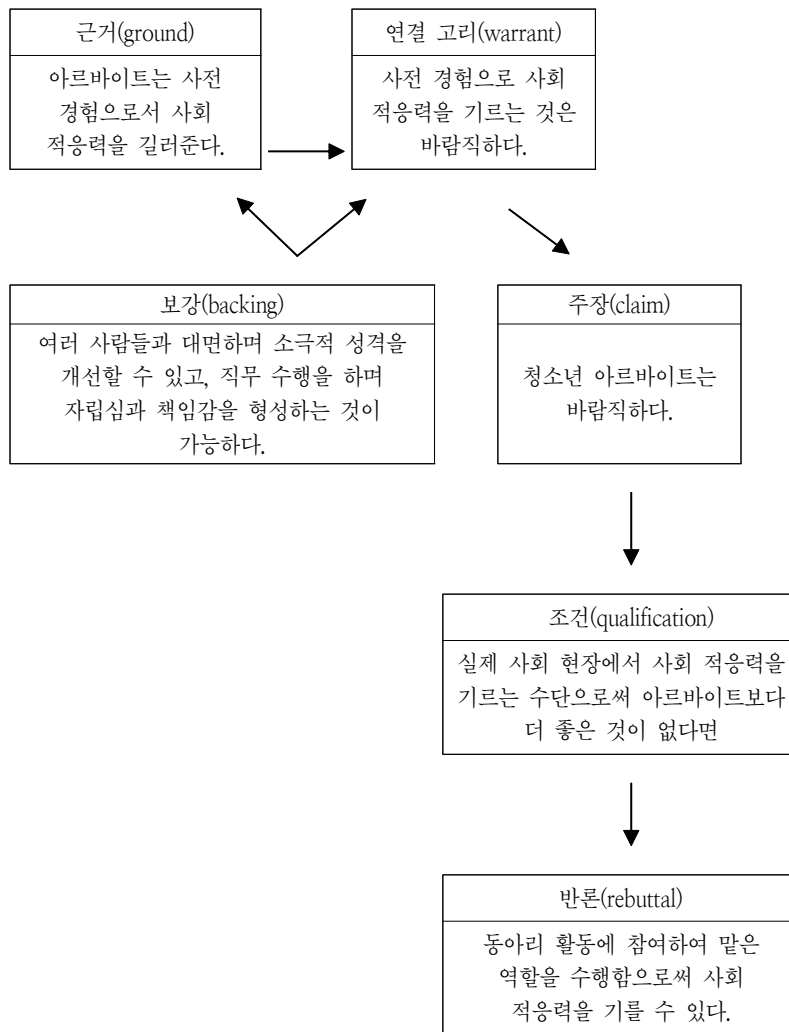
위의 주요 토론 모형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회식	CEDA식	프닉스식
토론 인원	4 (2:2)	4 (2:2)	6 (3:3)
작전 회의	×	○	○
발언의 공정성	×	○	○
발언 횟수	제1 토론자 2회 제2 토론자 1회	모두 3회(입론, 교차 질문, 반론 1회씩)	모두 2회(확인 질문 포함)
토론 시간	40분	72분(또는 60분)	38분
확인 질문	×	○	○

2. 토론의 탄탄한 뼈대가 되는 논증

논증이란 어떤 근거에서 타당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사유 과정을 말한다. 토론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의 타당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어떤 주장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나 진리가 충분한 이유가 되게 이끌어 내어 상대가 근거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어떤 주장(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근거나 증거들을 제시하여 주장(결론)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논증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틀민의 모형을 통해 효과적인 논증을 할 수 있다. 틀민은 논증이란 받아 들여진 근거로부터 연결 고리를 통해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틀민 모형에서 말하는 논증의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장(claim)**은 논증의 결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그 '무엇'에 해당하므로 논증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② 근거(ground)는 주장을 설득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사실, 자료, 증거 등이 해당된다.

③ 연결 고리(warrant)는 주장과 근거를 타당하게 만드는, 즉 근거로부터 주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④ 보강(backing)은 연결 고리가 표면적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⑤ 조건(qualification)은 주장의 강도를 통해 주장과 근거를 통해 주장과 근거를 한정시켜 준다.

⑥ 반론(rebuttal)은 주장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예외 조건이나 주장에 반하여 제기될 수 있는 예상되는 반론을 말한다.

3. 토론의 방어용 성벽, 입론

① 입론의 정의와 중요성, 구조

입론이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며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반론을 대비하여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튼튼한 방어용 성벽을 쌓는 것과 같다.

입론을 세울 때에는 토론의 논제를 해석하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된 배경을 밝혀야 하고, 배경을 밝힘으로써 상대측과 판정단이 그 논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입론을 구성할 때는 필수 쟁점을 포함해야 하는데, 필수 쟁점이란 사실, 가치, 정책 등의 토론 종류에 따라 대립되어 전개되는 토론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을 말한다. 가치 토론에서는 가치 판단에 대한 용어와 판단

기준, 판단 방법 등이 필수 쟁점이 된다. 정책 토론에서는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 역사적 배경, 문제의 중요성, 심각성, 지속성, 해결성, 이익과 손실 등이 필수 쟁점이 된다.

입론에서 논제의 필수 쟁점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주장하느냐에 따라 토론의 성과가 갈리며 입론의 구조에서는 토론의 논제 해석, 용어의 개념 정의,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된 배경 설명,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사례 |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물도 생명체라는 입장에서 함부로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인간을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① <본격적인 입론에 앞서 동물 실험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물 실험이란 의학적인 실험을 하는 데에 동물을 사용하여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실험동물은 원생동물에서 포유동물 영장류까지 포함되나, 사람은 제외됩니다.>

② <‘의학적 목적을 위한 동물 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저희 측은 동물 실험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③ <동물 실험 중단을 찬성하는 이유로 첫째, 동물 실험 결과가 항상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은 인간과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동물에게 행해집니다. 동물에게 실험을 하였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그 약을 투여하고, 만약 동물에게 실험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 연구를 다시 하게 됩니다.>

④ <그러나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의 경우, 여러 동물에게 실험을 했으나 동물들이 모두 건디어 내어 임신부의 입덧을 없애는 약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은 임신부들이 모두 기형아를 출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은 인간이 먹었을 때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는 약이었습니다. 또한, 플로신티라는 관절염 치료제는 원숭이 외의 다른 실험동물들이 모두 약을 견디어 냈지만, 이 치료제를 먹은 여덟 명의 인간은 사망했습니다.>

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인간과 유사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동물 실험에 쓰인 동물과 인간이 약물에 동일, 또는 유사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고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①은 ‘의학적 목적을 위한 동물 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단계이고, ②는 동물 실험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는 단계, ③은 논제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단계, ④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 ⑤는 근거에 대한 사례를 드는 단계에 해당한다.

② 입론의 시작

1) 논제의 배경 제시

토론 논제의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주어진 논제의 배경을 시급성, 중요성,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시급성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절박하고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중요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개선 필요성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2) 용어의 개념 정의

그 다음은 논제에 포함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사전적 정의,

법률적 정의, 전문가들의 정의를 인용하는 정의, 찬성 측이 편의적으로 만든 정의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	국어사전에서 용어를 찾아 그대로 정의하는 것
법률적 정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서 인용하여 정의하는 것
전문가들의 정의	학자들의 논문이나 저서, 학계에서 정의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정의로 사용하는 것
편의적인 정의	다소 유리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활발한 공방을 벌이는 데 도움이 됨

③ 입론의 구조화된 틀

<p>논제 ~에서</p> <p>① 우리는 ~을(를) 찬성(지지)합니다.</p> <p>② 그 이유는 첫째, <근거 1>이기 때문입니다.</p> <p>③ <근거 1>이 <주장>과 ~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p> <p>④ 이 <근거 1>은 <세부 근거 1, 2>를 통해 바람직합니다.</p> <p>⑤ 가령, <뒷받침하는 사례 1, 2>만 보아도 그렇습니다.</p> <p>⑥ 상대측은 저희 측의 <근거 1>(또는 주장, 세부 근거 1, 2, 사례 1, 2)에 대해 ~게 생각할 수 있으나</p> <p>⑦ ~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근거 1>은 ~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p> <p>⑧ 그 이유로 둘째, <근거 2>기 때문입니다.</p>

4. 토론의 흐름을 바꾸는 확인 질문

① 확인 질문의 개념과 필요성

확인 질문은 토론 과정 중에서 찬성과 반대의 경쟁적 속성이 가장 부각되는 부분으로, 주로 상대방의 입론을 듣고 자신의 반론을 준비하기 전 단계에 위치해 있다. 확인 질문은 자신의 주장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론을 비판적으로 듣고 이를 분석하여 자신의 반론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탄실하게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인 질문을 할 때는 상대측의 발언 중에서 특별히 주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중요한 문제와 상대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사실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이후 자신이 준비해야 할 반론의 내용과 관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 질문자의 전략

확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오류나 허점을 찾아 예리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토론의 분위기나 흐름을 자기 측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확인 질문을 잘하려면 자기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상대측의 핵심쟁점을 파악해야 함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측에 유리하게 질문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상대측의 발언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반박 성격을 띤 질문을 한다. 이때는 질문 항목들의 논리적인 연결 관계에 대해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 사례 |

찬성 측 입론	확인 질문
<p>학생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아르바이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소득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며 아르바이트는 학습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p>	<p>-청소년 시기에 꼭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경제 활동은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 활동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p>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한 논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논리적 허점에 대해 질문한다. 정의 개념의 범위, 근거의 사실성, 근거와 논제와의 관련성, 근거의 충분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질문한다.

| 사례 |

찬성 측 입론	확인 질문
<p>아르바이트는 사전 경험으로 사회 적응력을 길러 줍니다. 여러 사람과 대면하며 소극적인 성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며 자립심과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p>	<p>-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사회 적응력이 길러지지 않습니까? -자립심과 책임감은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기를 수 있습니까?</p>

토론에서 확인 질문을 하는 데에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답변이 길어질 수 있는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열린 질문보다는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근거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즉 출처가 정확한지, 통계 자료의 수치가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사실이나 사례 해석이 정

확한지 질문할 수 있다.

2) 답변자의 전략

질문의 내용을 경청하며 당황해하지 말고 입론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질문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할 때는 재치 있는 대답을 통해 상대방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정확하게 듣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역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 사례 |

찬성 측 확인 질문	답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는 불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직업 체험 프로그램 경험만으로는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상대측이 아르바이트의 불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던진 함정 질문이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희는 불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함으로써 상대측이 확대하려는 입장을 제한하여 자기 측의 입장이 일관된 논리로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질문에 적합하게 답하되 답변의 내용은 간략하고 명료해야 한다.

| 사례 |

찬성 측 확인 질문	답변
<p>본인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 아닙니까?</p>	<p>네. 그렇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에 주목해야 합니다.</p>

무조건 ‘아니요’로 답변하기보다 질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예’로 대답을 하되, 간략하고 분명하게 자기 측의 입장과 관련된 답변을 덧붙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장황하게 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반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5. 상대의 성벽을 허무는 반론

① 반론의 개념

반론이란 입론에서 찬성 측이 준비하고 정리한 주장과 근거, 연결 고리, 사례를 가지고 양측의 생각과 의견이 처음으로 만나서 연결되는 부분이다. 반론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순발력과 순간적인 판단력을 발휘하여 하기 때문에 토론을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찬성 측도 반대 측의 반론을 듣고 다시 재반론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토론의 중심은 반론 대결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 반론의 구조

각 반론의 발언은 다음 구조를 가지는 것이 좋다.

구조	발언의 예
상대방의 쟁점(point) 찾기	- 상대측은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 재표현하기	상대측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측은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하기	그러나 우리는 ~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을(를) 주장합니다.
이유 제시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정확하지 않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적 근거 제시	그 이유(사례)는 ~입니다.

③ 반론을 할 때 고려할 점

자기 측이 반론할 내용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론과 확인 질문을 통하여 자기 측에 유리한 쟁점을 찾아 정리하고, 하나의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반론을 효율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자기 측의 반론 내용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입론이나 확인 질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주장을 반론에서 처음 제시하면 된다. 상대측이 주장한 논증을 모두 반론하는 것이 좋다. 상대측의 주장, 근거, 연결 고리, 사례 등의 모든 요소가 잘못되었다고 반론할 필요는 없다.

④ 반론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직접적인 반론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은 상대측 논증 구조의 각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항목들을 각 논증 구조의 구성 요소에 적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을 상대방의 허점과 오류를 찾아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① 사실성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근거/연결 고리/사례/조건]이 사실인가? 또는 정확한가? 상대측이 인용한 요소들은 믿을 만한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② 관련성 (유기성)

제시된 사실들은 모순이 없는가? 제시한 [주장과 근거/연결 고리/사례/조건]이 서로 관련성은 있는가? 추론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가?

③ 충분성

제시된 사실들이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가? 의견이 제대로 된 출처에서 나온 것인가? 출처가 공정한가? [근거/연결 고리/사례]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들인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아닌가?

④ 부작용 찾기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부작용)는 없는가?

⑤ 새 방안 찾기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은 어떤 점을 잃게 하고 우리 측 주장은 무엇을 얻게 하는가?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이 실현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 그 대신에 내놓을 방안은 없는가?

⑤ 상대측의 의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1) 논점 이탈의 오류

주어진 논제와는 관련 없는 논증을 만드는 경우의 오류,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는 논제에 관한 토론에서 ‘현실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냐’ 쪽으로 토론하는 경우

2)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

상대가 주장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꾼 오류,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에 대해 찬성 측이 학교 경제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상대는 학교 경제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반론하는 경우

3) 인신공격의 오류

논리적인 반론이 아니라 상대측의 인격이나 정황 등의 약점을 이용한 경우의 오류,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청소년을 생산 활동에 내몰아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대응하는 경우

4) 발생적 오류

생성될 당시의 문제를 어느 상황이나 진리로 받아들여 주장하는 경우의 오류,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는 논제에 ‘본래 아르바이트는 비행 청소년의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므로 현재 목적으로 하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5)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충분하지 못한 근거로 주장을 세운 경우의 오류, ㉠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4%가량인데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생계유지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6)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해당 논제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인용하는 오류, ㉠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청소년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탈한다.’라는 경찰의 말을 근거로 ‘경찰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7) 군중 심리에 호소하는 오류

다수의 주장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오류, ㉠ 전체 국민 70%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한 후, ‘대다수 국민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8) 의도 확대의 오류

상대측이 주장할 때 근거나 설명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의도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오류, ㉠ 실제로 청소년이 일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일탈의 원인이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9) 잘못된 인과 관계의 오류

근거와 주장을 인과 관계가 아닌 대상으로 연결하며 인과 관계라고 내세우는 오류,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의 유희비 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인과 관계를 뚜렷하게 밝힐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6. 판정단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종 발언

최종 발언은 자기 측의 입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형성되었던 쟁점을 정리하면서 자기 측의 주장과 근거가 설득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최종 발언의 방법

1) 반론하기

상대측 주장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최종 발언에서도 철저히 반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된 반론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반론을 펼치지 못했거나 재반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론해야 한다.

2) 자기 측의 입장과 근거 강조하기

최종 발언에서는 “저희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은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 논제에 대해서 ~한 근거로 ~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와 같은 문장을 활용하여 자기 측의 입장과 근거를 강조하는 최종 발언을 구성할 수 있다.

3) 쟁점을 중심으로 발언 내용 정리하기

자신의 주장과 반론, 쟁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여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자기 측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희 측의 ~한 근거에 대해서 상대측은 ~라는 입장을 보여 A라는 쟁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말씀하신 ~한 입장에서는 저희 측에서 ~ 내용을 토대로 상대측의 근거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측에서 ~한 근거를 들어 ~한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한 근거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와 같은 문장을 활용할 수 있다.

4) 예화나 비유, 인용문을 활용하여 깊은 인상 남기기

최종 발언에 사용할 예화, 비유, 인용문의 내용 역시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나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명언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② 최종 발언을 잘하는 방법

첫째, 판정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말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토론이 매우 급하였더라도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발언만큼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유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좋다. 셋째, 토론을 하는 토론자도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느낄 수 있게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도 여유로워지므로, 진솔한 발언으로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넷째, 준비한 최종 발언을 그대로 읽지 말고 토론의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이해한 후 내용을 정리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II. 토론 실습

1. 토론 실습 논제

실제로 총 7번의 토론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일곱 가지 논제와 찬반 양측의 주요 쟁점과 주장을 정리해보았다.

- 첫 번째 논제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찬) 학교·가정에 편협된 사회생활을 아르바이트를 통해 넓힐 수 있으며 청소년이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용주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마저 챙겨주지 않는 등 청소년 피고용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

- 두 번째 논제 : 교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찬) CCTV의 설치가 범죄를 예방해주며, 현재는 인력으로 학교를 관리하고 있지만,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된다면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다.

(반)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예방 교육이 아닌 기본적인 교육 없이 진행되는 단순한 CCTV 설치에 교육의 기본 정신과 목적에 어긋난다.

• 세 번째 논제 : 의학적 목적을 위한 동물 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찬) 실험동물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며 잘못된 검증으로 인한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났다.

(반) 현재의 향상된 인류의 수명에는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된 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동물들의 질병 또한 치료할 수 있다.

• 네 번째 논제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찬) 자유는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때만 보장될 수 있다.

(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성이 도구인 점, 실명제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 다섯 번째 논제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여 장애인들을 채용함으로써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면 기업에 지나친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과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보다 장애인에게서 얻는 생산성이 낮다.

• 여섯 번째 논제 :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찬) 세계 다수의 국가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점차 줄어들고 있

는 추세이므로 세계의 흐름에 따라 사형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언제든 오판이 일어나서 사형을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

(반) 법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므로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흉악범들을 사형에 처하는 제도는 필요하며 2010년 헌법재판소의 사형 제도의 합헌 판결과 헌법 제 10조, 37조 2항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 일곱 번째 논제 :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

(찬) 경쟁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평준화는 전체적인 성적 하향화를 초래했다.

(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특목고에 일반 명문고까지 등장하여 더 큰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2. 토론 실습 모형

1) 초기 실습 모형 : 프니스식 토론 모형

순서	찬성 측			반대 측		
	제1 토론자	제2 토론자	제3 토론자	제1 토론자	제2 토론자	제3 토론자
1	입론(3분)					
2			작성 회의(2분)			
3					확인 질문(2분)	
4				반론 및 입론(3분)		
5			작성 회의(2분)			
6		확인 질문(2분)				
7			반론(3분)			
8				확인 질문(2분)		
9						반론(3분)
10	확인 질문(2분)					
11			작성 회의(1분)			
12		2차 반론(3분)				
13					2차 반론(3분)	
14			작성 회의(1분)			
15						최종 발언(3분)
16			최종 발언(3분)			

- 찬성 측의 입론 후 반대 측이 확인 질문을 하기 전에 작성 회의시간을 준다.
- 발언의 기본적인 순서는 ‘찬-반-반-찬’의 순서를 따르며 첫 발언을 찬성 측이 했으므로 최종 발언은 반대 측이 먼저 하고 찬성 측이 마무리하게 하여 찬성 측 다음에 반대 측이 계속 발언함으로써 생기는 불균형을 해결하였다.
- 작성 회의가 다른 모형에 비해 많다.

2) 후기 : 프니스식 토론 모형의 한계점 보완

- 반대 측이 반론과 입론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반대 측이 입론할 수 있는 시간이 찬성 측보다 적어지므로 반론을 제했다.
- 제한된 작전 회의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변형하여 배치하였다.
- 조금 더 유연한 분위기와 토론자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론 및 작전 회의시간을 대신하여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 청중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중질의 시간은 추가하였다.

위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표처럼 토론을 진행하였다.

순서	찬성 측	반대 측
(1)	입론	
(2)		확인 질문
(3)		입론
(4)	확인 질문	
(5)	작전 회의	
(6)		반론
(7)	반론	
(8)	자유토론	
(9)	청중질의	
(10)	최종 발언	
(11)		최종 발언

3. 토론 실습 후기

- 유민호 : 의사소통 연구반을 통한 토론 활동을 하기 전에는 토론이라는 활동이 상당히 접근하기 까다롭고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활동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번의 토론을 해봄으로써 토론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활동이 아니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유진 : 토론을 하면서 항상 쉬운 듯 어려운 나의 주장을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는 법, 타인의 주장을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안시현 : 토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토론할 때 필요한 새로운 팁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이수성 : 토론과 관련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직접 토론을 하면서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어 좋았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 주혜원 : 이전에는 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호소력 있게 잘 전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는데 ‘상대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토론은 단순히 말하기 능력이 아닌 듣기 능력이 중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 김예지 :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협동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 이채은 :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으며 토론 구성

원들 간에 의견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제니 : 토론 학습이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토론을 해 보고 토론을 배우고 싶었는데 충분한 경험을 쌓고 학교 교육에서 토론을 중요시하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 정혁진 : 입론과 반론 그리고 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 경험을 쌓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김민경 : 학교 현장에서 토론을 가르쳐야 하는 만큼 직접 토론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실습으로 말하기에 대해 자신감도 가지고 토론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 이원조 : 토론의 모형과 방법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면서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직접 토론에 참여하며 배운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이기홍 :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의사소통 중 토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실제로 토론을 해보면서 의견 교환을 했기에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춘향전』의 미학과 교육적 활용

고전문학교육연구반 (지도: Uliana Kobyakova 교수)

박명재(15) 김선영, 박규영, 박혜민, 양예원, 이승지, 정현지(16)

김성민, 윤기우, 전시영, 진은정(17)

김은샘, 최은수, 최지은(18)

1. 서론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거나 판소리적 성격이 강한 고전소설을 뜻한다. 다시 말해, 판소리와 아주 연관성이 깊은 문학 장르이다. 판소리계 소설을 알려면 판소리에 대한 내용도 빠질 수 없다. 본격적으로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 말하기 전에 간단히 판소리의 의미와 형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판소리는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 ‘놀이판을 차고 부르는 소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판’은 장단 변화가 있는 악조를 자칭하기도 한다. 판소리는 의도적인 창조물이라 기교가 발달되고 이론이 뒤따랐다. 판소리는 전라도(호남지방)에서 생겨났다. 전라도의 세습무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계승되고 아들 또는 남편 쪽은 곳을 거들거나 하는 악공 노릇을 하였다. 다만 그 정도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므로 재주를 부리거나 판

소리를 하게 되었다. 판소리 광대가 다른 고장에서도 나타난 것은 전라도의 판소리가 전파된 뒤의 일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이러한 판소리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형성되었고, 이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기록물로 정착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판소리계 소설 중 본 보고서는 『춘향전』을 다루려고 한다. 그 이유는 『춘향전』은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소설 중 하나이며, 이본 수, 유포의 범위, 인기의 정도, 오늘날 이루어지는 개작 등 어느 측면에서도 고전소설 가운데 으뜸으로 평가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춘향전』은 이 도령과 춘향의 사랑 이야기 속에 신분과 같은 당대 사회를 반영한 주제를 여럿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춘향전』을 대표로 뽑은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의 미학을 골계미와 장면의 초점화, 급진적 일탈화, 규범적 가치의 부정과 진보적 세계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춘향전』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1. 『춘향전』의 형성과 이본

『춘향전』의 형성에 있어서 『춘향전』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열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관탈민녀 설화’ 등이 『춘향전』의 근원 설화로 이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적층문학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 중 관탈민녀 설화가 가장 큰 바탕이 되는데, 이것은 관리의 수탈을 중심으로 인물간의 갈등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탈민녀 설화의 바탕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지 말고 이 도령과의 애정과 신의가

나타나는 부분처럼 여러 설화가 더해지면서 그 중심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춘향전』은 18세기 초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데 유포되는 동안 358종의 이본을 산출했다. 이는 고전소설 중 가장 많은 이본 수이며 번역본 역시 16종에 이르러 한국의 고전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만하다. 이 중 학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남원고사>, <열녀춘향수절가>, 신재효가 창본을 정리한 신재효본, <옥중화> 등이다. 이들 이본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시 춘향의 신분으로 가장 오래된 <만화본 춘향가>에서 기생으로 나왔던 춘향이 <남원고사>에서는 기생의 딸로 나오며 후대로 오면서 서녀로 신분이 상승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성씨의 경우 <남원고사>에서는 ‘김(金)’으로 나와 있기도 하나 신재효본 이후 ‘성(成)’으로 정착되었다. 이 도령의 이름 역시 초기 경판에서는 ‘이령’으로 나오지만 <옥중화> 등에서는 이몽룡으로 나온다. 오늘날 남원의 춘향제는 <남원고사>에 나와 있는 춘향의 생일 ‘사월초파일’에 열리고 있다.¹⁾

2. 『춘향전』의 주제

이 작품의 주제는 총 세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과 부패한 지배 계급에 대한 서민적 항거이다. 하지만 시대적 한계 때문에 민중의 독자적인 움직임보다는 양심적인 양반과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혁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상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춘향전』에 드러나는 봉건적 신분 항거,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 및 민중의 동향과 같은 요소들은 분명 진보적인 요소들로 이 작품이 단순한 애정 소설을 뛰어넘는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 김균태 외, 『한국 고전소설의 이해』, 박이정, 2012.

두 번째로는 한 남자에 대한 한 여자의 숭고한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주장과 달리, 사회 역사적 맥락을 배제하고 작품의 내면적인 순수한 사람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주장에선, 작품 속에 담긴 현실 비판이나 신분 구조들은 모두 사랑에 대한 부차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열녀임을 강조하는 봉건적 시각 역시 반대한다. 이는 이념이나 현실과의 연관성을 제쳐두고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알맹이만 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제의 이원적 구현이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는 ‘열’이라는 유교적 교훈을 드러낸 표면적 주제와 그 속에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 인간적 해방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이면적 주제가 있다. 『춘향전』은 이 두 주제를 한 작품에 녹여낸 것이다. 이 작품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작품에 드러나는 봉건성과 이면적인 측면의 진보적 계기의 관계, 사랑의 현실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낮은 신분인 춘향이 봉건 세력에 대항해서 한 남자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내세운 명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므로 실제로는 봉건적 신분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생 출신인 춘향은 ‘열’이나 ‘정절’을 내세운다는 것은 큰 모순을 보여준다. 하지만 작품에서 춘향이 열이나 정절을 내세워 양반 계층과의 인간적 동등성에 대해 강조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이몽룡과 춘향은 봉건적 모순에 대항하면서 점차 성숙한 사랑(인간적으로 신의를 지키는 사랑), 시대적 모순을 자각하는 사랑(봉건적 모순과 싸워가며 이루는 사랑)이 되어갔다.

이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다는 애정 소설임을 전제에 두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봉건적 사회에 맞서는 인물들의 저항 의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작품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춘향전』을 단순히 애정 소설이라고 보는 것 혹은 단순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으로

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²⁾

Ⅲ.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의 골계담

1. 골계담의 서사 원리와 구현 양상

조선 후기 다양한 문학적 장르의 틀을 빌어 표출되고 있는 골계적 정신은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당대의 현실 속에 감춰지고 있던 여러 모순점이 골계의 형식으로 폭로되고 재평가되는데, 이는 골계가 궁극적으로 비판과 대안의 선두 역할을 해냈던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골계는 사대부의 파한이나 농담이라는 소극적 차원이 아닌 민중을 기반으로 하여 단단한 공감세력을 형성하면서 창조된 것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모순을 담지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설화적으로 향유되었던 골계담은 이제 소설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과거로부터 탈피를 시도하고 당대의 현실을 거리낌 없이 묘사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골계적 자질은 지지기반인 민중이 우월한 쾌감과 승리에 대한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오직 웃음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중 정서와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판소리의 인물들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소망한 바를 이루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판소리의 인물을 바라보는 향유층(민중)의 인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것에 있어 비극적인 현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골계적으로 인식하려는 자세는 민중적 삶의 한 방편으로, 판소리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이어받으면서 발달한 서사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대 판소리계 소설에서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보이는 골계적 방식의 축소, 왜곡은 민중적 정서의 후퇴나 감소를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관소리계 소설의 작품군은 그 골계적 방식과 미학 양상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골계적 방식은 일차적으로 골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있는 것으로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규범과 현실 세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수행되는데, 규범적 세계는 인간이 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억압적인 것으로 인식되나, 현실적 세계에서 따라야 할 당위적인 인간의 삶의 양식은 보호되어야 하고 때로는 복귀되어야 할 것들로 인식된다. 즉 규범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의 분리적 인식은 때로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파괴되어야 할 대상을 드러내며 때로는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과 현실은 한 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분리와 평가는 하나의 관점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이때 기준이 되는 관점은 민중적 세계관이며, 관소리계 소설은 관소리가 가지는 민중적 세계관을 받아들여 형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세계관의 기준에 따라 규범과 현실의 가치가 나뉜다.

이에 따라 골계적 방식을 크게 규범적 가치에 일탈하는 방식과 현실적 가치에서 일탈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서 규범적 가치란 기존 사회에서 이념화 한 모든 '강제화'된 가치관으로, 국가 우선의 논리, 상하 신분질서의 논리, 남성 여성의 논리 등을 말하며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 덕목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체제의 유지와 기득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념화된 것이다. 이에 반해, 현실적 가치란 당대 현실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으로 인간 사회의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인 선악관이나 도덕성의 문제, 경제력 등을 말한다. 선악관이나 도덕성 등은 규범과 상통하는 면도 있으나 이념화되고 관습화된

차원과는 달리 인간 정서의 보편적 발현을 중시할 때 이는 현실적 가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효의 문제나 형제 사이의 우애 문제, 인간적이고 성실한 삶 등은 판소리 작품군에서 규범화된 것이라기보다 현실적 중요성의 띤 삶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작품의 주인공들은 규범적 가치에서 일탈할 때는 긍정적인 인물 형상으로, 현실적 가치에서 일탈할 때는 부정적 인물 형상으로 인식되면서 골계화를 이룬다. 이런 골계화적 양상을 『춘향전』에 적용하여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춘향전』의 인물·상황적 골계미를 시작으로, 골계적 서사 원리인 복합적 골계미, 급진적 일탈화, 미학적 지향, 마지막으로 규범적 가치의 부정과 진보적 세계 인식에서의 『춘향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2. 『춘향전』에서 나타난 인물과 상황의 골계담

『춘향전』에서 가장 골계의 대상이 되는 이 도령은 처음부터 철없는 호색한으로 설정된다.

사또 사람이 태과하여*, 도입초의 책방의 기생수청 들이자하니, 색이 상할까 염려하여 ‘책방에 만일 기생수청을 들이거나 반반한 통인수청을 들이는 폐가 있으면 너희를 잡아들여 복숭아씨를 뚫고 후추를 박으면 웃고 죽으리라’
(*태과 : 매우 지나침)

사대부의 자제로 재능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과 대조되는 이 도령의 성격은 치기 어린 사춘기 소년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아들의 호색을 걱정하는 사또의 ‘지엄 극악한’ 분위기가 너무나도 엉뚱하다. 아들에게 수청을 드리는 자가 있으면 복숭아씨에 후추를 잔뜩 넣어 먹여 ‘웃고 죽게’ 하겠다는 명령이 그것이다.

바른대로 말이지 도련님이 오입장이러나. …(중략)… 네 만일 향기로운 말로 맵시 있게 시를 부려 아주 푹푹 말아다가 왼편 볼기쪽에 붙이면 그 아니 묘리가 있겠느냐? 남원 것이 네 것이오. …(중략)… 네 덕에 나도 관청고즈나 하여 호강 좀 하여 보자꾸나.

방자는 이 도령과 춘향의 원조자인 동시에 방해꾼이다. 방자가 『춘향전』에서 중요한 이유는 철부지 이 도령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조선 후기 양반사회의 허위의식과 나아가 그들이 완강하게 지키고자 했던 권위를 난장판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기능을 맡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방자는 월매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이익·사회적 인간의 전형으로도 형상화된다. 세계 안에서 살아갈 방도를 확립해야 하는 방자에게 있어 세계는 질서의 장이 아니라 해엄처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하는 거대한 물살이다. 따라서 생존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춘향도 이러한 골계적 관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방자가 이미 오입장이라는 정보를 주었음에도 방자를 따라나선 춘향의 마음속에는 방자가 일러준 계산속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방자와의 문답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춘향의 욕설이 난무하는 말투는 그녀가 과연 ‘열녀’가 될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따라서 초반부 이 도령과 춘향의 골계적 인물 설정은 전시대의 낡은 규범을 파괴하는 긍정적 인물 형상으로 그러지면서 후반부의 재결합에 있어 더욱 큰 인간적 변화를 실감케 한다. 신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작했던 사랑이 굳건하게 재결합했고, 춘향이 획득하고자 했던 인간적 권리들이 정실부인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춘향전』이 소설화되면서 나타나게 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언어의 다채로운 구사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언어의 골계화 현상은 「남원고사본」이나 「이고본」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비유, 욕설 등 문

맥의 일탈화와 언어의 기발한 사용을 볼 수 있다. 또한, 고사성어와 한문투로부터 일탈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언어를 대입시킴으로써 기대의 일탈양상을 초래한다. 이는 언어 자체를 놀이로 인식하는 차원으로 골계의 특징적인 양상을 형상화한다.

<p>(가) 횡설수설 쥘언부언하여 온 가지로 힐난다가 눈을 드리 거문고 세운 거슬 보고 니른 말이 “저 옷둑 섰는 거시 빠기질군이나” 디답히디 “스람이 아니라 거문고오” “거문고라 하니 옷칠흔 피냐 먹칠흔 피냐” “거문 거시 아니라 타는거시오.” “타는 거시라 하니 잘 타면 하로 몇 니나 가느냐” “그러케 타는 거시 아니라 쓰는 거시오.” “종일 잘 쓰드면 몇 조각이나 쓰느니” “그러케 쓰는 거시 아니라 손으로 줄을 희롱하면 풍류쇼리 난다 호오”</p>
<p>(나) 우리 두리 만나시니 만날 봉즈 비점시오 빅년가약 미즈시니 미질 결즈 비점시오 ...<small>(중략)</small>... 우리 두리 입 맛초니 법즉 녀즈 비점시오 우리 두리 빅 다히니 빅 북즈가 비점시오 네 아리 구버보니 오목 요즈 비점시오 너 아리 구버보니 너 밀 철즈 비점시오 두 몸이 혼 몸 되니 모들 합즈 비점시오 나아갈 진 물너갈 되즈 줄 빈즈 비점시오 조홀 호즈 실 산즈 물 슈즈 다 비점이라</p>

(가)에서 이 도령은 춘향의 대답을 의도적으로 다른 것에 대치함으로써 동음이의에서 오는 문맥의 일탈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골계적 방식은 골계담의 분석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나) 에서 사용된 것은 한자의 모양이나 뜻을 상황에 맞게 이용함으로써 그 상황을 골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열거된 한문구 또는 한자들이 앞에서는 전아한 한문 고사 식으로 나열되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신들의 사랑 놀음을 대입시킴으로써 규범성과 본능성의 대조적 정서를 일으키고 이러한 정서의 전도 현상은 규범성에서 일탈하여 골계를 발생한다.

한편 결말 부분에서 이 어사는 춘향을 불러내어 기생들에게 물어뜯어 해칼시키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남원고사」계열에서 독특하게 보이는 삽화

이다. 이어 사가 생일 연에서 기생에게 박대 받은 것을 꽤 씩히 여겨 춘향의 해칼을 시키고, 기생들은 이에 춘향에게 아첨하면서 칼을 이로 물어뜯느라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회화적으로 그려진다. 곧 춘향의 해칼이 신분의 해방인 동시에 인간권리의 주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때, 기생의 해칼은 구조상 의도된 장면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춘향과 계급적 동일성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춘향의 해칼을 기생을 통해 해결하는 골계적 방식을 취하되, 전 신분의 해방적 유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보편적인 규범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정신은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그것이 이념에 강요당하는 현실의 문제일 때는 더욱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춘향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물 군상의 골계적 삽화, 재기발랄한 언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골계미의 성향은 진보된 사회상과 항상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의 이러한 면모는 거창한 명분과 관념적 열정에 지배되는 영웅의 세계로부터 세속적 삶의 지평으로 서사적 관념이 이동하면서 포착된 당대적 현실성의 일부이며, 중세적 관념의 틀이 편의적으로 배제했던 인간존재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라는 의의를 지닌다.³⁾

IV. 판소리계 소설의 골계적 서사 원리

1. 복합적 골계화

판소리계 소설의 골계적 서사화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의

3)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국면이 인물, 상황, 구조, 언어 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골계화의 정도도 증폭되고 여기서 드러나는 형상도 다중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초분망신’ 대목은 인물과 상황, 구조가 결합하여 골계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초분망신’ 대목에서 선비들은 이 어사가 춘향 소리를 듣고 슬퍼하는 것을 본 뒤 속이기로 작정하고 절충을 시켜 거짓으로 패를 깨끗이 함으로써 이 어사를 골탕 먹인다. 곧 전체 사건이 속고 속이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들과 이 어사의 수작은 앞뒤의 사건 전개와 인과 관계없이 설정되어 있다. 속은 이 어사조차 그러한 사실에 노여워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 단지 이 어사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독자는 폭소를 터뜨릴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삽화가 순연한 골계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삽입된 것임을 알려준다. 선비들과 이 어사의 관계는 속고 속이기를 통해 이 어사의 망신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어사가 가서 통곡한 초분은 강좌수의 딸의 무덤이다. 이를 춘향의 묘로 오해하고 그로부터 빚어지는 실수를 이 삽화는 담고 있다. 곧 오해와 실수로 빚어지는 골계적 상황의 전개이다. 그리고 강좌수는 시집도 안 가고 죽은 딸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어사에게 망치를 들고 가서 난장결치할 것을 지시한다. 결국, 이 어사는 삼십육계 줄행랑을 놓고 만다. 어사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인에게 봉변을 당하는 이 어사의 모습이 그려짐으로써 비속화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초분망신’ 대목은 이 어사의 어리석음과 비속화를 드러내면서 오해와 실수로 대변되는 상황의 전개, 속고 속이기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삽화이다. 인물, 상황, 구조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대목은 골계적 효과를 증폭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인물과 상황, 언어가 결합하여 골계적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기생점고’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대목의 골계화의 양상은 인물, 상황,

언어 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생을 점고하는 상황 자체는 이미 변 사또의 공사를 저버린 부조리함을 폭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부임 시 기생의 이름을 올리라고 분부하는 변 사또의 억지와 양이를 대라는 말에 기대하던 춘향과는 관계가 먼 양자 운을 들고 있는 이방의 오해가 빚어내는 불일치, 그리고 줄줄이 점고 당하면서 드러나는 기생들의 형태가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2. 장면의 초점화

판소리계 소설은 골계적 장면을 특별히 일반 서사 진행과 구별하여 크게 부각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판소리의 ‘장면극 대화’ 원리와 긴밀하게 맥이 닿아 있는 원리이다. 곧 어느 하나의 장면에 최대한 충실하기 위해 그 장면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구조와 일관성에 상관없이 끌어다 붙이는 관습을 판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의 극대화 현상을 골계적으로 구현하는 원리가 바로 ‘초점화’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장면을 골계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난다. 초점화를 지향하는 첫 번째 방식은 집단적 난장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골계적 효과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춘향이 태형을 맞고 투옥되는 장면에 남원의 한량이 등장하는 장면은 집단적 난장 상황의 연출이 골계적 방식이 됨을 잘 보여준다. 집단 군중의 등장과 춘향에 대한 동조, 가엾은 춘향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왁자지껄한 어수선함을 주는 게 아니라 곧 춘향이 많은 동조 세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춘향의 투옥과 왈자들이 벌이는 난장적 상황은 마치 초상을 치르는 집안의 떠들썩한 마당을 연상시킨다. 이를 통해 독자는 춘향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골계적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춘향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암시받게 된다.

초점화의 두 번째 방식은 서사 전개에 있어 반복과 나열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반복과 나열의 구조는 언어의 공식구적 표현이라는 작은 단위의 실현에서부터 에피소드의 반복과 나열이라는 큰 단위의 실현에까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식구를 바탕으로 한 반복과 나열을 통해 골계화가 되는 방식을 즐겨 쓰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다수의 인물 치레나 정황 치레, 운자 풀이, 점고 부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복적인 전개를 계속 나열하고 터무니없는 것까지 끊임없이 끌어들이므로써 하나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골계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실현에서 반복과 나열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삽화의 반복 전개라는 큰 단위의 실현이 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사태의 반복을 통해 골계는 점층적으로 강화되면서 곧 그 삽화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초점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3. 급진적 일탈화

작품의 일관된 인물 성격이나 정서, 상황, 구조, 문맥 등에서 돌연한 일탈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중요한 서사 원리로 기능한다. 이들 일탈의 원리는 골계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이나, 판소리계 소설은 일탈의 원리를 드러내면서도 앞서 진행에서 급진적인 일탈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골계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독자들의 기대 심리에 대한 반전을 급격하게 이룩함으로써 골계화 되는 것이다. 특히 비장한 상황이나 인물의 숭고함 뒤에 이어지는 골계는 급진적인 일탈감을 크게 발생시킨다. 이러한 일탈화의 양상은 인물, 상황, 구조, 언어면 등 모든 서사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춘향의 옥중 자탄 사설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 춘향이 꾸었던 꿈을 해몽하기 위하여 허 봉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이

상황의 일탈은 일관된 정서를 급격히 파괴함으로써 순식간에 비장에서 골계로 전환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곧 허 봉사의 등장은 춘향의 비극적 상황과 정서에서부터 급격한 상황의 일탈을 이루고 있다. 이는 사건의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다분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춘향전』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일탈 장면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장한 정서나 긴장된 상황에서 골계적인 일탈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일관된 정서의 파괴를 통해 더욱 큰 골계의 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급진적 일탈화가 골계적 서사의 중요한 원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춘향전』에서는 일탈이 육체와 결부된 외설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웃음의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다. 춘향이 매를 맞으며 분연하게 부르는 십장가의 언어적 진술은 비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열 번째 매를 맞은 춘향의 언어는 갑자기 외설과 육담이 섞인 돌연한 언어 표현이 된다. 여기서 독자는 앞에서 일관되게 느껴오던 분기탱천함에서 당황하게 되고 실소하게 된다. 이러한 외설적 차원으로의 일탈은 인간의 규범성을 파괴함으로써 얻어지는 쾌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진적 일탈화의 원리는 이처럼 일관성을 순식간에 파괴하면서 순간적으로 반전된 정서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판소리계 소설이 지니는 이러한 골계적 서사의 원리는 판소리적 장르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소리는 골계적 시각으로 삶의 양태를 조망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미학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면밀한 탐구는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골계미학적 성과를 분명히 드러내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⁴⁾

4)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V.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적 지향과 사회적 의미

이러한 골계화의 양상 외에도 소설적으로 드러나는 미학적 지향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골계적인 세계 인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다양한데, 이 다양한 인식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미학적 지향의 문제는 곧 어떠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 표현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그런데 골계화를 통해 드러나는 소설적 가치나 그 지향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 양상으로 보아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존세계의 전복을 지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세계를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것이다. 전복과 폭로는 골계화의 방식이면서 주제적 지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미학 양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세계의 전복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드러낸다는 면에서 생산적이라 할 수 있고, 기존세계를 부정하고 그 속에서 보이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들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세계로의 이행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곧 세계의 전복과 창조를 의도한다. 반면 기존세계의 폭로는 규범 가치에서 배태된 모순과 허위를 고발하되 견고한 자기 세계의 방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새로운 세계의 이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기존세계에서 감추어 오던, 혹은 강압하던 것들에 대한 폭로 그 자체는 비판과 반성을 독자에게 요구하고 있기에 또한 발전적인 면모를 그 속에 배태하고 있다. 이때 그 골계양식은 비극 상을 감추고 진행되거나 완강한 기존질서를 허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향을 드러내는 작품들은 불완전한 결말을 통해 관념 사회에 편입되거나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춘향전』은 정절이나 효를 제도적 관습의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이념 그 자체에서 일탈하는 방식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규범의 일탈성

을 구조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생이 정절을 통해 정렬부인이 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는 상황의 설정으로, 이러한 구조는 결국 신분적으로 열등한 자의 소망이나 꿈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인공이 신분적 열세에서 벗어날 것인가가 이야기 진행의 초점이 되며, 이와 함께 이야기 속의 지배층, 관리층, 양반층 또한 끊임없이 자기 신분과는 다른 차원으로 일탈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 보이지 않던 인간적 약점을 골계화시킴으로써 관념에서 일탈하는 자를 조롱한다. 이 도령의 어리석음과 천진함, 변 사또의 호색성과 탐욕성, 월매의 이기적 허영 등을 통해 대상 인물을 폭로함으로써, 이념화된 인물 형상에서 일탈한 모습을 통해 현실적 차원의 인간상을 꾸밈없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소설 속 인물들에게서 신분적 개념은 끊임없이 일탈하고 어리석은 개인과의 대등한 관계만이 남게 되는데, 대상의 성격적 결함을 폭로함으로써 그동안 약자의 위치에 서 있던 주인공들은 우월한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 이를 통해 이념이 지배하는 현실적 세계에서 소망하는 긍정적인 세계상을 유쾌하게 끌어내게 된다. 이는 제도적 이념을 역으로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민중 의식의 승리 상이라는 점에서 구조상 아이러니의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념에 대항하는 논리의 설정이 지혜로 전제되면서 약자로 대변되는 주인공의 승리 상을 골계적 방식을 통해 보여준다.

『춘향전』은 규범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형상화(일탈)하는 한편 이에 대항하는 약자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세계를 긍정함으로써 결국 규범화된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구현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는 억압받던 자, 가지지 못한 자의 인간적 권리나 평등권, 자유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 세계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춘향이 신분적 차별성을 극복하고 인간적 사랑과 신뢰를 동등하게 누려야 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세계는 평등과 자유, 해방을 위해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기 기반 위에서 행해지고 있고 그 방식은 서민적인 문화와 유쾌함을 동반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중적 해학이라고 할 수 있다. 약자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가진 자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 일탈감 속에서 얻어지는 웃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⁵⁾

VI. 『춘향전』의 교육적 활용

1. 고전소설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

오늘날, 고전소설을 현대소설만큼 흥미롭게 가르치기란 쉽지 않다. 고전소설은 단순한 선악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평면적이라 흥미 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고전소설은 대체로 어려운 어구나 사자성어로 쓰여 있어 학생들에게는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고전소설 교육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고전소설이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흥미 유발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접해 왔던 고전소설은 그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읽은 ‘한국 전래 동화’가 전부일 것이다.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쉽게 우리의 고전을 접하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도와주었지만, 반대로 학생들에게 ‘한국 전래 동화’가 고전 문학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는 한국 전래 동화가 청소년들이 더 이상 고전 문학에

5)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지 수능 또는 내신 대비용으로 고전소설의 요약본을 구해 읽거나 교과서, 또는 문제집을 통해 배우는 것이 전부이다.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의 문학 수업 시수가 부족해 다양한 감상 위주로 수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만 늘었다. 과목 수가 줄어들어 고등학생에게 국어 상, 하를 모두 가르쳐야 하니 문제가 심각해진다. 결국, 이러한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3학년이 되면 입시 때문에 이를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만다. 결국, 국어 상, 하를 1학년에, 문학 상, 하를 2학년 또는 3학년에 다 배우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작문, 독서, 화법, 문법 등 선택 과목이 1, 2학년 교과에 편성되어 있으면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3학년 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아예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곧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수업이 아니라 수능을 대비한 언어영역 수업으로 변용되어 버린다. 그리고 수능과 관계없는 다른 과목은 지필고사를 볼 정도만 진도를 나가고 그 뒤에는 거의 자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교육 현장은 눈앞의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암울한 현실인 것이다.

2. 모듬 토의 수업을 활용한 『춘향전』 교육

하나의 고전소설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느 수업 방법이 최고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이 작품을 만

지고, 느끼고, 뜯어내고, 다시 만들 수 있으려면 다양한 수업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었고 그들이 살아있는 고전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고전소설을 가르치는 바람직한 방법은 작품이 하나의 의미 체로 생성되고 존립하는 데 작용한 제 요인을 해석의 유효 요소로 인정하면서 나의 시각, 체험, 시대적·문화적 의식이 그것과 소통되도록 중재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모둠토의 과제는 연간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둠끼리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좋다. 발표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다른 조에서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있어 발표와 질의응답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학습에 연간 발표계획을 개시해 두면 학생들이 과제 준비를 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 과제 수행이 훨씬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소단원마다 모둠발표 문항 수는 3개가 적당하다. 모둠발표는 1시간 단위로 매듭이 지어야 학습의 효과가 크다. 그렇지 않고 모둠발표가 그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면 수업의 흐름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갖기도 어렵다. 다음은 모둠 토의 수업을 통한 『춘향전』 수업 방안이다. 다음은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하)에 포함된 『춘향전』의 문제이다. 여기서 모둠 토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과제가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습 활동: (함께하기) 『춘향전』을 변형하여 만든 작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서로 비교해보자.

이 문제를 통하여 발표할 모둠 토의과제를 좀 더 자세히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토의과제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춘향전』의 변형 문제에서 모둠토의를 할 때 다루어야

할 토의과제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이 다룰 수 있는 토의과제를 제시해주는 게 좋다.

현재 국어(하)에서 『춘향전』의 계승된 모습을 보여주는 삽화로는 영화, 창극, 마당놀이 등 세 가지이다. 곧 영화는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과 그동안 영화화된 〈춘향전〉 포스터를, 창극은 〈춘향전〉을, 마당놀이는 〈암행어사 놀도야〉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고전 소설 『춘향전』이 여러 갈래로 변형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은 2000년대를 즈음하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자주 볼 수 있다. 『춘향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는 현대 시, 신소설, 현대소설, 드라마, 창극, 영화, 연극 등 여러 갈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현대 시가 가장 다양한 폭으로 계승되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대시: 강우식의 〈탈춤2〉, 김기진의 〈대수풀 우거진 곳〉, 김영랑의 〈춘향〉, 〈두견〉, 김춘수의 〈집1〉, 노천명의 〈춘향〉, 박재삼의 「춘향이 마음」, 박희진의 〈한국어를 기리는 노래〉, 서정주의 〈추천사〉, 〈다시 밝은 날에〉, 〈춘향유문〉, 송수권의 〈춘향이 생각〉, 이태극의 〈소리8〉, 전봉건의 「춘향연가」, 정완영의 〈황국〉, 최석하의 〈죽(竹)〉, 최하림의 〈춘향비가〉 등
- ② 신소설: 이해조의 〈옥중화〉(1912)
- ③ 현대소설: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1925~1926), 이주홍의 〈탈선 춘향전〉(1951), 임철우의 〈옥중가〉(1991), 김주영의 〈외설 춘향전〉(1994), 최인훈의 〈춘향뎐〉(1996) 등
- ④ 드라마: 〈쾌걸 춘향〉(2004)
- ⑤ 창극: 창립정립위원회본(1), 〈창극 춘향가〉(20마당), 박진 연출 국립창극단 15회, 1970. 창극정립위원회본(2), 〈창극 춘향전〉(1부 6장, 2

부 8장), 이진순 연출, 국립창극단 16회, 1971. 이원경(1), 『춘향전』 (4막 21장), 이원경 연출, 국립창극단 24회, 1976. 이원경(2), <대춘향전>(5막 10장), 이원경 연출, 국립창극단 32회, 1980. 허규, <춘향가>(14장), 허규 연출, 국립창극단 58회, 1987.

- ⑥ 영화: 연쇄극 <춘향전>(1922), 만고열녀 <춘향전>(1923), 류봉렬의 <춘향전>(1923), 발성영화 <춘향전>(1935), 일본 감독의 <춘향전>(1935), 해방 후 최초 <춘향전>(1955), 김향의 <대춘향전>(1957), 이병일의 <춘향전>(1958), 이경춘의 <탈선 춘향전>(1960), 홍성기의 <춘향전>(1961), 신상옥의 <성춘향>(1961), 이동훈의 <한양에서 온 성춘향>(1963), 이성구의 <춘향전>(1971), 이형표의 <방자와 향단이>(1972), 박태원의 <성춘향전>(1976), 한상훈의 <성춘향>(1987), ANDY KIM의 만화 <성춘향전>(1999), 임권택의 <춘향전>(2000), 김용옥의 <새춘향전>(시나리오)(1987) 등
- ⑦ 연극: 유치진의 <춘향전>(1936), 김용락의 <방자놀이>(1984), 장윤환의 <여시아문>(1996), 이근삼의 <춘향아, 춘향아>(1996), 장소현의 <춘향이 없는 춘향전>(1996), 오태석의 <기생비생 춘향전>(2002) 등

3. 모듈 토의 수업을 활용한 『춘향전』 교육의 실재와 평가

토의 과제) 『춘향전』을 변형하여 만든 아래 작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 ① 『춘향전』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 ② 작가 『춘향전』을 변형한 의도는 무엇인가?

- 서정주의 ‘춘향유문’, ‘추천사’	- 김영랑의 ‘춘향’
- 최인훈의 ‘춘향전’	- 드라마 ‘쾌걸 춘향’

『춘향전』을 변형하여 만든 작품들을 비교하는 것 외에도 『춘향전』을 배

우면서 모둠토의수업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설 『춘향전』과 판소리 〈춘향가〉를 비교하기
- ② 『춘향전』을 여러 관점으로 감상하기
- ③ 창작하기(모방 창작하기 포함) → 공동 창작(시, 소설, 수필 등)
- ④ 희곡으로 각색하여 연극으로 공연하기
- ⑤ 『춘향전』의 작품 고쳐 쓰기(배경, 시점, 화자, 주인공, 구성, 문체, 결말, 문제 해결방법 등을 바꾸어 쓰기)

위와 같은 모둠토의문제를 제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토의과제는 모둠원이 역할 분담을 하여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토의과제는 발표한 뒤 학생들이 서로 토의할 만한 것이라야 한다. 과제 ①은 대단원 ‘준비학습’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과제를 해결한 바 있다. 곧 대중가요인 〈홍부가 기가 막혀〉의 가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홍부가〉, 〈홍부전〉에서 찾아 자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과제 ②는 〈허생전〉을 배울 때 이미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과 표현론적 관점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효용론적 관점, 존재론적 관점 등으로 확대하여 이를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제 ③과 ④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쓴 글은 문학 학습 자료실에 바로 올려 여러 학생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관심 있는 학생은 댓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하나의 문제를 두고 생각의 차이를 견주어 볼 수 있고, 또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적어봄으로써 비판력을 기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연극으로 공연해 보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즐겁게 수업할 방법이다. 과제 ⑤는 고쳐 쓰기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한 뒤, 이를 각각 다른 과제를 모둠별로 부

여하면 고쳐 쓴 작품을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때 작품의 올바른 이해와 고쳐 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둠토의 발표자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계속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둠원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둠 토의 발표의 평가는 학생들에게 직접 하도록 하면 발표가 더 진지하고 듣는 학생들도 훨씬 관심을 끌게 된다. 물론 마지막에는 교사가 정리하여 총평을 해주어야만 한다. 그때 학생들의 발표 중 잘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 발표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평가사항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시하여 이를 숙지한 뒤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직접 발표에 대해 평가를 해봄으로써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둠별 상호평가표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문항	1	2	3	4	5
1. 주제와 잘 부합하는 발표를 하는가?					
2. 발표의 내용 전달이 잘 되었는가?					
3. 질의응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는가?					
4. 모둠 조원이 협력하여 토의를 하였는가?					
5. 문제의식이나 비판의식이 잘 드러나는가?					

이렇게 모둠별로 상호평가를 하면 학생들의 발표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자신이 발표할 때 직접 고칠 수도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

4. 모둠토의수업을 활용한 『춘향전』 교육의 장단점

고전소설을 흥미롭게 가르치기 위한 수업방법으로 모둠토의수업이 최선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러 가지 수업방법 중 하나일 따름이다. 이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가능하면 많은 학생을 수업 속으로 동참시킨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둠토의수업은 처음 출발할 때 학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지도해야 원만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모둠 짜기, 과제 전달과 발표, 발표준비와 순서, 발표자료 게시판에 올리기, 풍부한 질의응답, 도움을 주는 상호평가 등이 모둠원끼리 하나로 이어질 때 기대하는 수업을 연결할 수 있다, 모둠토의수업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모둠토의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어나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 고전 문학에 확대 적용해도 학습의 흥미 유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지가>를 가르칠 때 이와 관련된 작품과 함께 ‘쓰기’ 중심 다루어서 수업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때 모둠별로 과제를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기다리는 가락국 국민들의 심정을 산문으로 써 보자.
- ② ‘구지가’처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부른 노래를 조사해 보자. (고전 시가, 대중가요, 팝송 등)
- ③ ‘구지가’와 말하기 방식이 같은 ‘해가’를 현대적 관점으로 비판해보자.

둘째, 고전소설 단원을 분석하여 학습요소를 추출한 뒤, 이를 모둠별로 과제를 정하여 발표하면 학생들이 고전소설을 좀 더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고전소설의 다양한 감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발표준비를 잘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도교사가 토의과제를 적절하게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토의과제는 학생들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학습요소와 관련시켜야 하며, 그들이 관심을 두고 해결할 과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곧 학생들이 고전소설에 쉽게 접근하면서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과제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작품 속의 주인공을 자신의 문제로 연결해 보며, 소설에 반영된 삶을 오늘의 시각으로 비판해봄으로써 학생 자신의 삶을 더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고전소설 속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이야기로서 화석화되어 우리 앞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가올 것이다. 물론 모둠 토의과제를 제시할 때 한편의 작품을 다룰 때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둠토의수업에서 위와 같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지도교사는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워야만 모둠토의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첫째, 모둠토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과 진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문학 수업시수가 부족한 터에 학생들의 발표에 치중하다 보면 진도가 늦어지기에 십상이다. 수업 중 발표가 끝나고 다음 모둠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오래 허비되지 않도록 발표 순서를 반드시 정하고, 발표할 내용은 교실 컴퓨터에 미리 저장하고 발표 차례가 되면 바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둘째, 모둠원들의 활동을 확인하지 않으면, 모둠토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곧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론 방’을 개설하여 같은 모둠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둠별로 준비한 자료는 발표하기 전에

‘문학 학습 자료실’(웹 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모둠원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간혹 발표할 자료의 준비가 늦으면 발표한 뒤에라도 그 자료를 올리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웹 게시판에 올라온 모둠발표 자료를 읽고 자기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이는 학생들이 다 함께하여 수업 분위기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셋째, 모듬토의 발표는 가능하면 1시간 단위로 끝나는 게 바람직하다. 모듬발표를 하다 보면 수업 시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표 시간이 길어지든지 아니면 질의응답이 많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듬토의 발표 문항 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3문제가 비교적 적당하다. 모듬발표를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지면 발표준비를 한 모듬에서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발표 수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 것이다.

넷째, 모듬토의 과제를 만들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모듬토의 과제는 토의할 만한 것이라야 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표만 하고 토의 없이 끝날 수 있고 토의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과제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⁶⁾

Ⅶ.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이자 한글 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의 성격과 가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판소리계 소설은 일반적으로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정착된 작품으로, 판소리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판소리계

6) 우창호, 「모듬 토의수업을 통한 <춘향전> 지도 연구」,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소설은 판소리가 나타난 이후에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 산문으로 이루어진 다른 소설들과 달리 율문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으나 율문이라는 형식적인 문체보다 판소리를 향유하고 전승시켰던 서민들의 지향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초기 판소리를 장식하고 현재도 그 전승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야말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과 의의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중인들과 양반들이 판소리에 참여하면서 그 지향도 많이 바뀌었다. 초기에 연행된 〈춘향가〉, 〈심청가〉 등은 서민들이 추구하는 ‘결핍의 충족’을 공통으로 드러냈지만, 뒤에 나타난 〈배비장타령〉, 〈왈짜타령〉 등은 중인이나 양반층의 향락과 위선적 세태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초기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작인 『춘향전』은 두 남녀의 결합을 통하여 당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분 철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본래의 내용을 유지하되, 춘향의 열녀화에 반대하고 순수한 사랑에 집중하였다. 또한 진보적 성향과 관련된 골계적 정신을 통해 신분 문제와 여러 모순점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웃음 속에서 민중 정서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춘향전』이 궁극적으로 봉건적 신분에 항거하고, 부패한 지배층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에 있어서 선두 역할을 해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전소설을 한낱 옛날의 이야기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늘을 삶과 관련지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경험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고전소설이 먼 거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그 전통이 우리 생활 속 여기저기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스

스로 계승해나가되 새로운 방향의 발전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춘향전』을 가르치면서 수업이 끝나더라도 영화 <춘향뎐>과 판소리 <춘향가> 감상하기,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춘향전』 읽어보기, 창극과 마당놀이에 관심 갖기, 축제나 여러 행사에서 연극 공연하기 등 확장된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고전소설의 교육적 방향은 앞으로 더욱 희망적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작자 미상, 송성욱 옮김, 『춘향전』, 믿음사, 2004.
2. 김균태 외, 『한국 고전소설의 이해』, 박이정, 2012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국어 교육연구소, 「2002년판 고등학교 국어(하)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2.
4. 우창호, 「모듬 토의수업을 통한 <춘향전> 지도 연구」,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5. 윤종선, 『한국 고전과 콘텐츠 개발』,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2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7.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공간 분석을 통한 4인 4색 소설 읽기

현대문학교육연구반 (지도: 손예희 교수)
김원영(13), 남진욱, 천강운, 한상현(14)
윤소현, 이선명, 이선운, 허유정(16)
문수민, 오하나, 윤다솜, 심혜정(17)
안현선, 유선우, 이병진, 이지혜, 정민지(18)

1. 머리말

소설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를 ‘공간적 배경’이라 한다. 공간적 배경은 소설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이다. 소설 속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인물의 심리를 더욱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작가의 의도를 더욱 섬세하게 전달하기도 하며, 그 자체로 특정한 무언가를 상징하거나 암시하여 작품의 의미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분석하는 것은 곧 작품 분석의 기초공사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 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채만식의 『탁류』, 박태원의 『천변 풍경』,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문구의 『관촌수필』 네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각 작품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II. 경향성의 분화와 소설적 관심의 확산기(1930~1944)

1930~1944년대는 우리 근대소설사의 뛰어난 작품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탄압과 맞물려 이념의 내재화와 일상성의 대두가 소설의 주요 문제로 부각된 시기이다.¹⁾ 이 장에서는 작가 채만식과 박태원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타락한 근대 공간 '군산'을 통해 채만식의 『탁류』(1937) 읽기

탐구 수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흥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김광해 1997:124).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선 국어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1) 풍자 작가 채만식과 『탁류』²⁾

채만식은 한국소설사에서 드물게 풍자 문학의 가능성을 시험했던 작가다. 그는 1930년대 초기에 동반자적인 성향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적 지위를 확보했고 「레디메이드 인생」, 『탁류』, 『태평천하』, 「치숙」 등의 풍자적인 작품을 통해 독특한 소설적 세계를 창조하였다. 채만식의 현실 풍자는 주로 식민지 상황 자체에 대한 부정을 목표로 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현실에서 소외된 지식인들의 냉소적인 관점과 태도를

1) 조남현·홍정선 엮음(2007), 『한국문학선집 소설 1』, 문학과지성사, 7쪽.

2) 권영민 외(2002),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497-501쪽 참고.

보여주고 있는 그의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탁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초봉은 정주사의 큰딸이다. 자신의 집에 하숙하는 건실한 청년 승재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초봉에게 관심을 보이던 은행원 태수와 결혼하게 된다. 태수의 친구인 간악한 형보는 태수가 간통을 저지른 것처럼 꾸며 맞아 죽게 한다. 남편을 잃은 초봉은 자신이 일했던 약국 주인 제호를 따라가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형보와 억지로 살림을 꾸리게 된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딸 송희를 낳아 키우는데, 형보가 송희를 자꾸 괴롭히자 초봉은 형보를 극도로 증오하게 되어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다 또 송희를 괴롭히는 형보를 보고 분을 참지 못해 그를 멧돌로 때려 죽여 버린다. 그리고 승재와 동생 계봉의 권유로 자수한다.

이렇듯 『탁류』의 이야기는 초봉이라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것은 가련한 여인의 일생이라는 단순한 의미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초봉이의 삶이 보여주는 비극성의 실상은 전통적인 인습과 새로운 풍속이 서로 맞부딪치는 과정 속에서 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역경을 의미한다.

초봉이를 둘러싼 인물들을 당대의 현실에 관련지어 볼 때, 거의 비슷한 삶의 패턴을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인간형이 많다. 그녀의 아버지 정주사는 군서기를 지내던 때에 몸에 익었던 안일한 관료적 태도와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집안에서 헛된 권위만을 내세우고, 미두장에 나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비굴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의 삶에 대한 태도는 오직 물질적이며, 전통적인 미덕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풍속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인간적 몰락을 면하지 못한다. 초봉의 남편이었던 고태수는 은행이라는 근대적인 제도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금전만능주의자

이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남의 돈까지 횡령하고 자신의 일생을 망쳐버린 채, 아내 초봉이마저 비극적인 삶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또 약국 주인 박제호의 부도덕과 지나친 이해타산적 면모, 곱추 형보의 표리부동하고도 기회주의적인 악랄한 행동, 남승재의 순진하면서도 우유부단한 면모는 모두 타류의 현실에 휩싸여 있는 부정적 인간상의 일면이다. 이 소설은 이들이 보여주는 비인간적 태도와 탐욕적인 행위를 모두 부정한다. 정주사가 보여주는 물질적 욕망을 부정하고, 고태수가 보여주는 불성실과 위선과 사기를 고발한다. 형보의 부정과 탐욕도 철저히 응징한다. 이는 즉 이 같은 인간들이 자리하고 서 있는 식민지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소설은 초봉이 순진무구한 희생자적 성격에서 살인과 죽음으로 내달는 비극적 운명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가는 판에 박힌 비극의 멜로드라마적 구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초봉의 동생인 계봉과 그녀의 애인이 되는 긍정적 인물 남승재를 통하여 미래의 희망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소설 타류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삶에 대한 희망과 절망, 현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함께 제시된다. 이것은 작가의 세계관에서 볼 수 있는 양가성의 소설적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통속성과 비극성을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의 구성적인 성격과 연결된다. 이 부분이 소설적인 구성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데에 장애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당대 민중의 현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풍자적 장치가 되고 있다.

(2) 『탁류』의 공간과 그 의미

① 군산: ‘청류(淸流)’에서 ‘탁류(濁流)’로의 변질 공간

『탁류』의 공간적 배경인 군산은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공간이다. 식민지 경제 소통의 창구였던 군산은 수탈의 전초 기지의 일환이자, 속절없이 빼앗김을 당하는 장소였다. 그런 군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초봉의 운명적 비극이기에, 여기서 초봉은 단순한 개인일 수 없다. 식민지 현실에서 수탈당하는 조선 민중의 전형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초봉의 극단적 고난과 상처,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나름의 저항 행동은 의미 있는 어떤 것이었다.

『탁류』는 여주인공 초봉의 기구한 운명의 족적을, 금강 물이 점점 탁해지는 현상에 비유하면서, 비유적으로 타락한 당대의 세계상을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다. 가련한 초봉은 아버지의 상징적 질서를 수락함으로써, 비극적 주인공이 된다. 아버지를 비롯한 고태수, 박제호, 장형보 등 초봉 주위의 남성들이 그녀에게 부여한 상징적 질서는 당시의 타락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지배적인 욕망체계에서 억압당하고 피해당한 대표적인 인물인 초봉은 결말 부분에서 동반자 이념의 소유자 남승재와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배적인 욕망체계에서 벗어나고 분리된다. 즉, 상징적 질서에서 벗어나 상상적 질서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

3) 우찬제(2014), 「비극적 현실주의와 패배한 개인 욕망」, 채만식, 『탁류』, 문학과지성사, 703-704쪽.

금강(錦江)……

이 강은 지도를 펴노코 안저 가만히 디려다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께서 남북으로 납작하나 찌저가지고는 한강(漢江)이나 영산강(榮山江)도 그러키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잇슴을 알 수가 있다. 한 번 비행기라도 타고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내려다보면 그림직할 것이다. (중략)

이러케 어렵살히 서로 맛나 한데 합수친 한 줄기 물은 게서부터 고개를 서남(西南)으로 돌려 공주(公州)를 끼고 계룡산(鷄龍山)을 바라보면서 우줄거리고 부여(夫餘)로……부여를 한 바퀴 휘돌러다가는 급히 남으로 꺾겨 단숨에 논매강경이(論山江景)까지 드러닷는다.

여기까지가 백마강(白馬江)이라고 이틀테면 금강의 색동이다. 여자로치면 흐린 세태에 찌들지 아니한 처녇적이라고 하겠다. (중략)

그러나 그것도 부여전후가 한참이지, 강경이에 다다르면 장꾼들의 흥정하는 소리와 생선비린내에, 고요하든 수면의 꿈은 깨여진다. 물은 탁하다. (중략)

이러케 에들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黃海)바다에다가 깨여진 꿈이고 무엇이고 무엇이고 탁류(濁流) 얼러 좌르르 쏘다져 바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언덕으로 대처(大處=市街地) 하나가 올라안졌다.

이것이 군산(群山)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 채만식, 『탁류』 중에서⁴⁾

여기서 백마강과 금강 본류의 대립적 양상은, ‘처녇적’ 과거 전통의 아스라한 ‘순결성’과 타락한 근대 현실의 폭력성 간의 대조로 읽힐 수 있다. 또한, 흐린 세태에 찌들지 않은 백마강이라는 ‘원류’가 갑작스럽게 ‘단숨에’ ‘탁류(濁流)’로 변해버린다는 것은 기형적인 양상의 식민지 근대화의 격랑 속에서 일거에 무력해진 조선의 전통을 상징한다. 그 ‘탁류’의 배설 공간으로서의 ‘황해’ 역시 이름 그대로 탁한 이미지를 강렬하게 자아낸다. ‘군산’이라는 공간이 1930년대 후반 당대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공간의 상징화에 의거한 것이다.⁵⁾

4) 채만식(2014), 『탁류』, 문학과지성사.

5) 정홍섭(2004),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185-186쪽.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스래』(京浦里) 이러한 몇 곳이 군산의 인구 칠만 명 가운데 룡만도 넘는 조선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움닥움닥 모여 사는 곳이다. 면적으로 치면 군산부의 몇 십분지일도 못 되는 땅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리된 시구(市區)라든지 근대식 건물로든지 사회시설이나 위생시설로든지, 제법 문화도시의 모습을 채리고 있는 본정통이나, 전주통이나, 공원 및 일대나, 또 넉넉이 월명산(月明山)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지대나, 이런데다가 빗대면 개복동이니 둔뱀이니 하는 곳은 한 세기나 뒤져보인다. 한 세기라니 인제 한 세기가 지난 뒤라도 이 사람들이 제법 고만큰이나 문화다운 살림을 하게 되리라 십이 안다.

- 채만식, 『탁류』 중에서

이와 같은 공간의 상징화는 작품 서두 부분의 또 다른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서의 대목에서보다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공간의 상징화가 이루어진다. 즉 ‘청류(清流)’가 ‘탁류’로 변질된 부정적 결과물을 조선의 기층 민중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당대 현실이 그 상징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의 근대는 도시 내의 불균등 발전 또는 불균등 근대화를 그 본질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정통’이나 ‘전주통’의 화려함으로 상징되는 일본인들의 생활과 ‘개복동’, ‘둔뱀이’의 더럽고 웅색한 조선 민중들의 삶의 대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② 미두장(米豆場): 식민지 자본주의의 타락상 상징 공간

『탁류』에서 미두장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타락상을 상징하기 위한 장소로 기능한다. 식민지 조선의 기형적 자본주의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미두와 이로부터 야기되는 조선 현실의 전반적 타락상은, 작가 의식의 중심을 이루는 바 퇴락한 전통과 근대 현실간의 착종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 중요한 시대 배경적 근거를 제공한다.⁶⁾

6) 정홍섭(2004), 앞의 책, 183쪽.

미두는 오늘날 주식과 같이 의제(擬制)자본을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실질적인 생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본 자체의 증식을 명목상으로만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물거래는 없고 방안지(方眼紙)에 쓰인 의제자본만 부유한다. 미두장을 서성대는 인물들은 의제자본의 등락 속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정주사·고태수·장형보·박제호)들 또한 식민자본의 노예가 되어 욕망에 사로잡힌 채, 부나비처럼 미두장에 날라들어 거기에서 기생한다. 정주사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하바꾼으로 전락한 것도, 고태수가 고객 예치금을 횡령한 것도, 또 장형보가 사기와 범죄에 노출된 것도 이런 자본주의적 욕망을 근원으로 한다.⁷⁾ 이러한 욕망은 많은 인물들을 몰락으로 빠뜨리며, 부정적 인물들의 몰락의 근원에는 미두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두장의 묘사는 단순히 의제 자본의 유동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진다.

미두장은 식민지 자본 침략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선진 자본을 이식시켜 조선의 민족자본을 위축시키고 또 소규모 토착자본을 잠식해 나갔는데, 미두장은 그런 식민정책의 최전방의 장소이다. 결국 미두장에 기생했던 정주사, 고태수, 장형보는 이런 식민 정책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몰락은 당시 일제 식민 자본의 불구성과 왜곡성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⁸⁾

7) 임명진(2014), “채만식 『탁류』의 ‘장소’에 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59, 현대문학이론학회, 273쪽.

8) 임명진(2014), 앞의 글, 274쪽.

2. 도시적 근대 공간 ‘천변’을 통해 박태원의 『천변풍경』(1938) 읽기

(1) 세태소설 작가 박태원과 『천변풍경』⁹⁾

세태소설이란 특정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현실의 사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소설을 말한다. 임화는 1930년대에 현실의 소재를 있는 그대로 그려낼 경우 작가 자신의 이상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고, 작가 자신의 이상을 제대로 살려내려면 작품의 사실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대소설의 특징으로 세태소설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화는 세태소설은 작가의 의식을 죽이고 작품의 사실성에만 치중한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세태소설의 대표작으로 박태원의 『천변풍경』, 채만식의 『탁류』 등을 든 바 있다.

박태원의 『천변풍경』은 세태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나면서도 소설 기법과 그 문학적 성과를 동시에 규명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장편소설 『천변풍경』은 소설적 기법의 면에서 1930년대 소설 문단이 거두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수확이며 당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을 제시하여 도시 서민들의 세태를 종합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50절로 나뉘어 있고 약 7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정해진 핵심적인 주인공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각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자신의 행위의 주체가 되어 소설 속에서 움직인다.

『천변풍경』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한복판을 흘러나가는 청계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있다. 도회의 모든 일들이 이곳 천변으로 흘러들어 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청계천 주변에는 온갖 행색의 인간들이 각기 제

9) 권영민 외(2002), 앞의 책, 민음사, 448, 459-463쪽 참고.

뭣을 가지고 얼굴을 내민다. 돈과 생활의 안정이 주는 세속적인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중산층의 인물들, 가난은 숙명이며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서민층의 인물들, 봉건적인 남성의 억압적 지배에 피해를 입은 여인들, 세상의 진실과 허위를 발견하며 성장해가는 아이들 등 다양한 인물들의 생활상이 드러난다.

또한 등장인물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시민의식 속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인물들은 모두 탐욕스러운 생각만 가지고 자신의 안일만을 중요시한다. 이 모든 인물의 삶은 모두 도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일 수밖에 없고 각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도시 서민들의 세대를 종합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천변풍경’은 청계천변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약 일 년 동안 사계절의 순환을 따라 변화하는 삶의 다양한 삽화들을 연결되는 식으로 제시된다.

(2) 『천변풍경』의 공간과 그 의미

① 천변: 근대의 도시 공간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의 경험은 계절의 순환 같은 원환적인 것이었으며, 미적 감각 역시 자연스러움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었던 반면,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경험은 더 이상 원환적인 성격을 띠지 않게 되었으며 자연을 모방하는 대신 인공적인 것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근대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이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깊은 차원에서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다. 근대 사회에서 이를 위해 작동하는 장치는 크게 둘인데 하나는 이데올로기, 다른 하나는 일상성이다.¹⁰⁾

10) 장수익(2005), 「근대적 일상성의 부정과 자립적 공간」, 박태원, 『천변풍경』, 문

일상성은 자신이 왜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왜 그런 감각을 느꼈는지 설명해주고,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끔 유도하여 삶의 안정감을 얻도록 한다. 근대 사회의 대중들이 이에 기대어 경험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일상성을 믿지 못하고 그것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근대적 경험을 극대화시켜 제시하여 일상성이 설명하지 못하는 경험을 사람들이 예술 속에서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모더니즘이 시도했던 수많은 기법들은 일상성을 부정하려는 지향이 숨어있다. 박태원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작가적인 궤적은 모더니즘의 의의와 한계를 보여준다. 초기 작품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쉽게 간취할 수 있는 것도, 모더니즘의 일반적 성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일상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천변풍경』의 설정을 보면 가장 뚜렷한 것은 공간의 분할이다. 빨래터, 이발소, 카페, 한약국, 신전(여관), 이쁜이네 집, 당구장, 종로통 술집 등 각각의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도시의 공간적 특성처럼 장소적인 근접성 외에 그 공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도시 공간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소설화한 『천변풍경』의 의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박태원이 쓸 ‘좋은 소설’의 방향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암시되었다. ‘황금광 시대’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는 이들에게서 구보는 그나마 일상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았는데 박태원은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자신의 집 주위인 청계천변에서 발견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묘사한 소설이 『천변풍경』이며, 이는 근대적 일상성을 넘어서는 ‘좋은 소설’을 목표로 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¹¹⁾

학과지성사, 426-436쪽.

11) 박태원, 『천변풍경』, 문학과지성사, 435-436쪽.

② 빨래터, 이발소: 소문의 이합집산지¹²⁾

박태원의 『천변풍경』 속 천변은 궁핍에 쫓겨 농촌에서 상경한 이들, 지독한 시집살이를 피해 상경한 여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카페로 내몰린 여급들, 돈벌이에 내몰린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생활상이 다채로운 만큼 천변에는 항상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다. 『천변풍경』에서 소문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주요 공간으로 빨래터가 나온다. 빨래터 여인들은 방망이를 힘차게 두드리며 남의집살이 하는 그녀들의 애환을 실컷 털어놓고, 주인집 어른들의 흉도 신나게 본다. 그렇게 천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문은 빨래터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급속하게 전파될 거라는 것이 『천변풍경』의 풍경에서 짐작된다.

『천변풍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소문의 진원지는 이발소다. 이발소는 빨래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소문의 진원지이다. 빨래터에서의 소문이 그곳에 모인 여성들의 대화 속에서 오고가며 유통된 것이라면 이발소에서의 소문은 이발소 소년 재봉이의 일방적인 독백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천변풍경』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갖가지 소문들은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소설 속의 소문은 천변 주변의 인물들 사이에서 생성되고 유포되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당시 천변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기층민들이 느끼는 당대의 불확실한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천변풍경』 속 대부분의 소문은 불행한 여인들이나 남성들의 불륜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근대식 교육을 받은 남녀의 연애와 결혼이 기층민들의 삶과 대조되면서 그들의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장치로써 나타난다.

12) 엄숙희(2016), 「박태원의 『천변풍경』 속 '소문'으로 읽는 근대의 풍경」, 『국어문학 61』, 국어문학회, 219-224쪽.

III. 현실의 질곡과 문학적 역설의 시대 (1960~1979)

1960~1979년대는 소설가들이 자유롭고 감각적인 문체, 현실에 상응하는 한글문체를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게 된 시기이자, 풍요와 빈곤, 계층의 분화와 갈등을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 이념과 역사, 일상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들이 본격적으로 대거 생산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¹³⁾ 이 장에서는 작가 김승옥과 이문구를 중심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상의 공간 '무진'을 통해 김승옥의 「무진기행」(1964) 읽기

(1) 감수성의 작가 김승옥과 「무진기행」

김승옥의 감수성은 같은 한글세대인 『산문시대』(1962~1964) 동인들의 언어의식을 대표한다. 이는 모국어에 대한 애착의 측면뿐만이 아닌 문학적 언어에 대한 탐구와 실험정신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산문시대 동인들은 이상이 추구했던 모더니즘 실험을 계승하기 위하여 '시정신의 산문'을 추구한다.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는 소설과 시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주관적 체험을 표현하는 서정적 형식은 자아 체험이나 일상성의 경험에 대한 내면적 반응을 다루는 이 작가의 소설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작품의 시적 특성은 언어의 정서적 측면과 감각적 체험을 통해 구체성이 확보된다고 믿었던 낭만주의 시인들의 면모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김승옥의 문체에서 감각적 이미지의 구사와 안개와 같은 상징

13) 조남현·홍정선 엮음(2007), 앞의 책, 7쪽.

적인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된다.

김승옥을 비롯한 『산문시대』 동인의 출발점은 ‘언어의 자각’인데 『산문시대』 창간호 서문을 통해 창조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언어’의 난무로부터 언어의 새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산문시대』 동인들은 안이함과 절망적 탈출이 없는 죽어버린 언어와의 결별을 주장하며 『산문시대』를 통해 자신들의 절망을 새로운 언어를 향한 의지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절망의 언어에서 탈출의 언어로 나아가려는 그들의 글쓰기 행위는 시대적 어두움에 대한 동인들의 현실적 인식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권위와 나태에 함몰된 기성 문단에 대한 새 세대의 저항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산문시대』는 창간호부터 대학생 문인 특유의 실험성 강한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전통과의 결별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을 띠었고 이는 전후 기성 문단보다 식민지 모더니즘 전통과 서구의 실존적 사고를 결합한 인상을 주었다. 『산문시대』의 1집에 실린 김현의 작품은 실험성의 실체와 한계를 잘 보여준다. 반면에 김승옥은 「생명연습」과 「건」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였으며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와 「사디리아시스」에 가서야 자신의 언어 실험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¹⁴⁾

1960년에 들어서서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변모는 1950년대의 순수문학적 경향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두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야기된 창작계의 변모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문학인들 자신이 밭을 딛고 있는 현실의 변화라 풀이된다. 즉 6·25의 상흔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를 갖게 되고 자유당 정권의 부패에 따른 저항의식 등이 휴머니즘을 기저로 하여 싹터 나오는 등 그동안 순수문학이 견지해온 문학의 독자성·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좌·우 대립으로 경색되고 상실되었던 사회적 공리성

14) 김명석(2004),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36-39쪽.

이 되살아나는 형태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특징은 작가 전체에게 균형 있게 형성되지 않고 각기 작가들마다 특정 부분이 강조되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의 문학은 1950년대의 문학을 계승하며 발전해왔는데 이는 우수한 작품들을 써 온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1960년대의 등단 신인들도 1950년대의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문학은 1950년대의 문학에 비해서 질적으로 구별되는데, 1960년대 중반 이후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의 사회 변혁적 소용돌이가 비교적 잠잠해지면서 그에 대한 문학인들의 고민과 대응이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에 이유가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신인들의 작품세계를 크게 두 경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김승옥, 이청준, 최인호 등 내성적, 실험적 창작기법을 도입한 모더니즘 경향의 부류와 신상용, 이문구 등 사실적 수법을 지향하지만 전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식을 보이는 부류가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의 문학의 새로운 흐름은 내성적 기교주의 문학, 모더니즘 경향, 시민적 리얼리즘 문학이라 할 수 있고 그 이전 작가의 경향까지 포함한다면 서정주의 문학을 또 하나의 부류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그중 신세대 선두주자로 칭해지는 김승옥은 대상을 바라보는 예민한 감성과 이국적이며 애상적인 문체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답답하고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물의 무책임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준다. 「생명연습」에서는 통상적인 도덕, 현실, 사회, 모든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은 철저한 개인의 것이라는 강한 주관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면, 「무진기행」에서는 바람과 자욱한 안개의 소음으로 내려온 도시 청년과 여선생의 무책임한 정사의 과정을 통해 새 세대의 의식과 감정, 무질서, 몽롱

15) 김윤식·김우종 외(2005),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430-431쪽.

한 추억,センチメン털리즘을 날카로운 감각으로 채색해 보여준다.¹⁶⁾

김승옥 작가의 감수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 「무진기행」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서술자로 등장하는 '나'는 서른셋의 나이로 제약회사 중역이다. 4년 전, 미망인이 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으며, 며칠 후면 그 아내와 장인의 도움으로 제약회사 전무가 될 몸이다. 그는 어머니의 묘가 있고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무진으로 내려간다. 잠시 동안의 휴가인 셈이다. 그에게 무진의 의미는 특별하다. 그곳은 참담했던 과거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는 이미 돈 많은 아내를 얻어 출세 가도에 올라 있다. 그는 무진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를 존경하는 후배인 박, 중학 동창이며 고등고시에 합격해 무진의 세무서장으로 있는 조, 그리고 음악교사인 발랄한 처녀 하인숙 등이다. 문학소년이었던 박은 그를 우러러보고, 출세한 숙물인 조는 갑자기 출세한 그를 동료로 취급한다. 하인숙은 그에게서 풍기는 서울 냄새를 즐기며 그를 유혹한다. 그는 하인숙의 유혹에 몸을 맡기며, 그가 폐병으로 요양했던 바닷가 옛집에서 정사를 나눈다. 무진을 탈출하고 싶어 하고 그와 일주일 동안만 멋진 연애를 경험하고 싶다는 하인숙에게서, 그는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을 느끼며 그녀를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그는 상경을 요구하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는 갈등한다. 서울로 가겠다고 작정한 후, 그는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찢어버린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는 서울로 간다.¹⁷⁾

16) 김윤식·김우종 외(2005), 앞의 책, 437쪽.

17) 두산백과, 「무진기행(霧津紀行)」,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일자: 2018.09.14.)

(2) 「무진기행」의 공간과 그 의미

① 일상의 변방에 있는 관념적 공간 무진(霧津)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무진’은 실존하는 도시는 아니지만 삶의 도처에 널려 있는 도시로 일상에 밀려 변방으로 쫓겨난 아득한 도시를 의미한다. 뚜렷이 존재하면서도 안개 저편에 숨어 그 실체를 감추고 있으며 사람들의 일상성의 배후, 안개에 휩싸인 채 도사리고 있는 음험한 상상의 공간이다. 그리고 일상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며 일상 속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 삶의 한복판을 점령해 들어오는 신기루의 도시로, 비본질적 세계의 의미를 몰음으로써 상처를 자극하는 피로운 도시이다. 또한 인간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는 일상 이전의 삶에 대한 본원적인 향수를 상징하는 관념적 공간이다.

무진이 ‘지도 위의 어느 곳’이 아닌 것은 그곳이 작가의 고향 순천과 같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서가 아니다. 그곳은 작가 김승옥과는 독립된 세계이다. 작가의 말을 빌면 「무진기행」은 “김승옥이라는 작가의 성명서가 아니라 언어로 형성된 독특한 세계”이다. “평생에 한 번도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독자도 있을 것이고 그 세계에 잠시 들렀다가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독자도 있을 것이고 그 세계에 눌러앉아 버리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이는 작가의 말처럼 무진은 ‘도처에 널려 있는 도시’로서 존재하면서 어떤 독자들에게는 주인공 윤희중과 동행하는 통과 제의적 여행의 목적지가 된다.¹⁸⁾

② 무진의 ‘안개’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

무진은 혼돈과 안개, 밤 등의 다소 어둡고 무기력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18) 김명석(2004), 앞의 책, 푸른사상, 152-154쪽.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특히 ‘안개’의 이미지는 순수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마음과 일상성을 유지하고 싶은 현실의 마음이 혼재되어 방황하는 자아의 갈등상태를 나타낸다. 소설 속에서 안개는 무진과 함께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이 속물적인 세계와 섞여 있는 상태로 표현되고 있다. 즉, 안개는 모든 것을 흐리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곧 세계와 자아를 분리시키고 혼자만의 공간 속에 갇혀 마냥 사색으로 일관케 하는 병풍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잡히지 않으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안개의 힘은 화자가 이미 떠나온 곳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다. 소설 본문의 개구리 울음소리와 하늘 공간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의 모습, 그리고 소설 곳곳에서 나타나는 혼자만의 공간을 통해 ‘자기 세계’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현실(서울) ↔ 혼돈(무진)의 대립된 관계의 갈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희중의 마음처럼 선과 악, 사람과 미움이 범벅된 무진의 세계는 아픈 상처가 있는 과거의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하고 친근하기에 안온한 세계를 꿈꾸고 있는 미래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윤희중은 혼돈의 세계 무진에서 벗어나 결국 현실의 세계인 서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선택하게 된다.

2. 현실의 공간 ‘관촌’을 통해 이문구의 『관촌수필』(1972-1977) 읽기

(1) 고향의 작가 이문구와 『관촌수필』

1970년대가 남겨놓은 사회적 초상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뿌리 뽑힌 자들(the uprooted)’이다. ‘뿌리 뽑힌 자’는 하나의 집합명사로, 백퍼센트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용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말은 ‘없는 자’라는 말보다는 분명 지시영역이 좁은 것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더욱 동태적인

느낌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박탈·억울함 등의 뉘앙스를 더욱 짙게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두루 다 걸치는 것이긴 하지만, 1970년대 소설의 경우 물질적인 면에서 뿌리가 드러나 버린 사람들 혹은 뿌리가 드러나는 과정을 그리는 쪽으로 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소설들이 보여준 뿌리 뽑힌 자는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을 빼앗기고 만 자뿐만 아니라 가져도 좋을 법한 것을 이른바 ‘가진 자’의 횡포와 조절 때문에 갖게 되지 못한 자까지 의미하였다.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뿌리 뽑힌 자 속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존재들이 포함되었다. 첫째, 생존에 필요한 요건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 둘째, 근대화·산업화·도시화의 격랑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 혹은 정신적 뿌리를 상실당하고 만 사람들. 셋째,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몰락의 길을 걷고 만 정직하며 소박한 존재들. 넷째, 기존의 법·제도·관념과 극심한 마찰을 일으킨 끝에 정신적 항상성(恒常性)을 놓치고 만 사람들. 다섯째, 특히 6·25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외상(外傷)에서 헤어나지 못한 나머지 일종의 실조상태(失調狀態)를 드러내고 있는 존재들.

대략 이와 같은 뿌리 뽑힌 자를 하위분류해 놓고 보면, 뿌리 뽑혀 있음의 논리가 물질적 측면의 상실을 지나 정신적 소외감과 박탈감에까지 걸쳐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1970년대 소설을 ‘소외의 미학’이라고 설명하려 한 사람들의 논거는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의 하위 개념들은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나타나기보다는 대체로 겹쳐진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문구의 작품을 읽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뿌리 뽑힌 자들’이다. 이문구는 『관촌수필』(1977), 「으악새 우는 사연」(1978), 연작소설 『우리동네』에서 뿌리 뽑힌 자들의 삶을 형상화하여 나타내었다. 『관촌수필』은 위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특히 두 번째 유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인물과 그들의 삶의 정황을 밀도 있게 그려내어 근대화와 산업화의 음지를 농촌에서 찾은 대표적인 경우가 되었다.¹⁹⁾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옛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 이문구, 「일락서산」 중에서²⁰⁾

대복이와 어울림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동짓날 밤 별밭같이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들도 그 거울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그쳐버렸다.

- 이문구, 「녹수청산」 중에서

『관촌수필』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근대화·도시화·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던 70년대에 쓰인 연작소설이다. 저자인 이문구는 농촌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과 도시화에 의해 훼손당하고 있던 농촌 사회의 아픈 세태를 묘사하여, 당시 우리 사회의 근대적 기획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그려냈다. 「일락서산(日落西山)」, 「화무십일(花無十日)」, 「행운유수(行雲流水)」, 「녹수청산(綠水靑山)」, 「공산토월(空山吐月)」, 「관산추정(關山芻丁)」, 「여요주서(與謠註序)」, 「월곡후야(月谷後夜)」 등 8편의 연작 중·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촌수필』을 관류하여 흐르고 있는 지배적 정서는 바로, 근대화·도시화에 의해 사라진 풍속과 정서, 인간에 대한 하염없는 그리움이다.

이렇듯 『관촌수필』은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만난 사람들, 고향을 떠나와서 만난 고향 사람들, 산업화로 인한 고향의 황폐와 등의 테마에 대하여 이문구 특유의 토속적인 문체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에게 있어서 그의 고향 시절은 인

19) 김윤식·김우종 외(2005), 앞의 책, 508-509쪽.

20) 이문구(1996),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자연과 자연이 서로 친화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주인공의 유년 시절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인 「행운유수」의 웅점이, 「녹수청산」의 대복이 등의 인물과 주인공이 맺고 있는 화해롭고 친화적인 관계는 작가가 농촌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이상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근대화에 대한 작가의 반감과 근대화 이전의 농촌 사회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현대 도시 사회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친화적이고 전인적인 인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이다. 「공산토월」에서 이문구는 그가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석공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신현석을 들고 있다. 그 사람은 화자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이웃과 남을 위해 몸을 버릴 수 있었던, 진실로 어질고 가룩한 하나의 구원한 인간상이 내 정신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을 통해 현대 도시 사회의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인간형을 비판하고 있으며, 근대화가 인간의 심성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근대적 기획이, 도시화가, 산업화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려는 소설가에게 『관촌수필』은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²¹⁾

(2) 『관촌수필』의 공간과 그 의미

① 격동적인 근대체험의 장으로서의 고향 (상실)

먼저 『관촌수필』은 근대화로 인해 잃어버린 ‘고향’의 존재와 의미, 즉 전

21) 권성우(1996), 「1991년에 읽은 『관촌수필』,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389-399쪽.

일적 공동체가 주는 안온함, 그리고 자연의 품속에 들어앉은 인간미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작품 1편 「일락서산」에서 “내가 생각하는 고향의 모습은 왕소나무가 여전히 고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이미 근대화가 되어버려 외양간만 한 슬레이트 지붕의 굴뚝만이 뻗질러 서있었다.”라는 장면에서 작가는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들밖에 남겨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험험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²²⁾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작가가

자신을 실향민이라고 자처하는 동시에 고향을 상실하였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또한, 여기서 『관촌수필』의 화자인 ‘나’가 잃어버린 ‘고향’은 혼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잃어버린 것의 의미로 증폭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살펴보면, 작품 4편 「녹수청산」에서는 주인공 ‘대복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대복이는 항상 ‘나’에게는 듩직한 버팀목이었고, 대복이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미군이 들어오게 되었고 미군이 들어온 후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주인공 대복이의 모습 역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피폐하게 변해가 자신의 전 모습을 상실한 대복이는 작품 속뿐만이 아닌, 현대사회가 점점 근대화 되면서 피폐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작가가 실제로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상실되는 인간미를 고향 상실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촌수필』에 대해 한 연구자는 “변화를 부정하지 않으며 근대화의 물결이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날의 변화, 급격한

22) 이문구(2010), 「일락서산」, 앞의 책, 13쪽.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거나 변치 않아야 할 것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다.”²³⁾ 라고 말한다. 사실 『관촌수필』에서 작가가 변화를 부정하고 있는 장면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작가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인간미를 그리워하는 장면 속에서 주인공 ‘나’의 고향의 변화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면적으로 보면, 작가가 근대화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근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작가는 고향을 ‘상실’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② 작품에 나타나는 고향의 분열상²⁴⁾

『관촌수필』에서 ‘나’의 고향은 자기동일성의 기원이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향수는 회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현재-고향의 체험은 과거-고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사라져버린”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들어선 “슬레이트 지붕”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과거-고향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식이다.

그 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버린 사실이었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외양간만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꼴볼건으로 뻗질러 서 있던 것이다.

- 이문구, 「일락서산」 중에서

이처럼 과거-고향은 부재의 방식으로 등장하고 소급적으로 의미를 부여

23) 구자황, 『이문구 문학의 전통과 근대』, 역락, 2006, 121-154쪽.

24) 용석원, 「이문구 『관촌수필』에 나타난 고향의 양상과 의미」, 『겨레와 문학 58』, 겨레어문학회, 251-255쪽 참고.

받고 있으며, 『관촌수필』의 고향은 시공간과 가치 부여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열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재현 성격	할아버지 상태	쾌락 성질	공동체 유무	자기동일성 여부
전전의 과거 - 고향	향수를 불러 일으킴	생존	향락	존재	가능
전후의 과거 - 고향	척박한 환경이지만, 인정이 있음	사망	쾌락		
개발된 현재 - 고향	옛 정취를 상실함	망각	불쾌	해체	분열

첫 번째는 한국전쟁 이전의 과거-고향이다. 지금은 상실한 본원적인 ‘나’가 존재하는 장소로서, 자기동일성의 실현이 가능한 시공간을 의미한다. ‘나’는 계속해서 이 시공간을 지향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나’의 향락이 ‘할아버지’에게 복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란의 기운이 감돌아도 할아버지의 존재 덕에 공동체는 굳건했고 인정은 넘쳤다. 즉, 할아버지의 생존으로 인해 전쟁 전의 과거-고향은 ‘나’에게 유토피아이다.

두 번째는 전쟁 이후의 과거-고향이다. 삶의 터전은 황폐해졌지만, 아직 인정만은 살아 있으며, 전후 복구가 되면 공동체와 인정도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공동체의 균열과 인정의 훼손은 상상적으로나마 봉합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근대 질서에 의해 재편된 현재-고향이다. 이문구는 여러 인물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주된 비판의 대상은 물질주의적 문화인데, 그러한 흐름을 잘 드러내는 ‘박래품’과 ‘대천 해수욕장’은 고향에서 공동체 의식과 인정을 몰아낸 정범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물질주의에 현혹되어 몰락한 대복이 자행한 나태한 생활과 절도 행각은 그가 전쟁 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행한 비인간적 행위보다 더욱 비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IV. 맺음말

작품 속 공간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문학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작품이 주는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다. 우리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과거의 시대를 직접 살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작품을 더욱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문학교육연구반에서는 ‘공간’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국 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네 편의 소설 작품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양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채만식의 『탁류』와 박태원의 『천변풍경』의 배경을 함께 다루었다.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군산’과 ‘천변’이라는 근대 공간을 다루면서도 각각 타락한 공간, 도시적인 공간을 나타냈다. 문학적 역설의 시대인 1960~70년대는 당대 사회 민중이 느끼는 ‘현실’의 의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두 작품을 살펴보았다.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각각 ‘무진’이라는 상상의 공간, ‘관촌’이라는 현실의 공간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각박한 시대 현실을 그려냈다. 이렇듯 각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공간적 배경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학에서 그려내는 공간은 단순한 배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작품의 흐름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독자는 작품을 읽으며 그 공간이 주는 느낌에 공감을 하거나 어찌면 그곳을 회상할 수도 있는 감동을 형성하기도 한다.

여기서 살펴본 『탁류』, 『천변풍경』, 『무진기행』, 『관촌수필』 네 작품은 작가도 다르고, 작품의 느낌도 각기 달랐다. 하지만 네 작품 모두 ‘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섬세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해하고 비교하며 읽기에 더욱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공간’의 설정이 주는 문학의 힘을 오롯이 느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 구자황(2006), 『이문구 문학의 전통과 근대』, 역락.
- 권성우(1996), 「1991년에 읽은 관촌수필」,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 권영민 외(2002),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 김명석(2004),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 김승옥(2007), 『무진기행』, 민음사.
- 김승옥·이태동(2007),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무진기행』, 성림.
- 김윤식·김우종 외(2005),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 박태원(2005), 『천변풍경』, 문학과지성사.
- 엄숙희(2016), 「박태원의 『천변풍경』 속 ‘소문’으로 읽는 근대의 풍경」, 『국어문학』 61, 국어문학회.
- 용석원(2017), 「이문구 『관촌수필』에 나타난 고향의 양상과 의미」, 『겨레어문학』 58, 겨레어문학회.
- 우찬제(2014), 「비극적 현실주의와 패배한 개인 욕망」, 채만식, 『탁류』, 문학과지성사.
- 이문구(1996),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 임명진(2014), 「채만식 『탁류』의 ‘장소’에 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59, 현대문학이론학회.

장수익(2005), 「근대적 일상성의 부정과 자립적 공간」, 박태원, 『천변풍경』,
문학과지성사.

정홍섭(2004),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조남현·홍정선 엮음(2007), 『한국문학선집 소설』 1, 문학과지성사.

채만식(2014), 『탁류』, 문학과지성사.

문법 영역 탐구학습 수업의 이론과 실제

국어교수법연구반(지도교수: 박선우)
허영환(12), 남기범, 허준성(13), 이해찬, 조기수(14)
김혜리, 박지은, 이정은, 최지연, 황예서(17)
강다연, 강병국, 이수진, 정승호, 최유리, 최은지(18)

1. 머리말

국어과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의 6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문법 교육은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문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문법 수업이 이미 명시된 문법 규칙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광혜(1997)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교수 학습 방법에서 탈피하여 ‘탐구학습’을 문법 교육에 도입하였다. 이때 제시한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도 논란이 있었으나, ‘주입식’이나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었던 문법 교육의 현실에 적합한 대안이 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처음 문법 영역에 탐구학습이 도입된 이후로 아직도 많은 형태의 탐구 학습 모형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중

문법 영역에서 사용하는 탐구학습이 무엇이며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탐구학습의 실행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학생과 교사의 반응을 통해 결과를 파악하며 문법 영역 탐구학습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탐구학습의 특성

탐구학습은 1950년 미국에서 과학 교과와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고안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탐구학습의 개념이 문법 교육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김광해(1992)에서 비롯되었다. 김광해(1992)에서는 문법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적절하고도 발전적인 대안은 바로 언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접근하여 가는 일이라고 말하며 문법 영역에서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인 탐구학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탐구학습은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명시되었으며 개정을 거듭할수록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위상을 접하게 되었다(최선희 2016).

김광해(1997)에서는 탐구학습을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찾거나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자가 경험하도록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과 가장 큰 차이는 교사의 역할이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교사는 학습자의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황시연 2014:9~10). 이처럼 김광해(1992) 이래 학계에서는 문법 교육에서의 탐구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탐구학습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문준식 2018:18). 첫 번째 특성은 학습자의 자발성이다. 자발성이란 수업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는 특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문법 영역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알아볼 때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미리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붙을 수 있는 어미가 다름을 설명하고, 예시 자료를 가져와서 학습자가 올바르게 품사를 구별하게 한다. 그러나 탐구학습 수업은 교사가 제시한 동사와 형용사의 예를 학습자가 분석하게 하여, 학습자는 자발적으로 두 품사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법칙을 찾을 수 있다. 김광해(1995)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지식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학생이 탐구학습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특성은 자료성이다. 자료성은 탐구 거리 및 증거 자료를 뜻하는데, 이는 탐구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관규 2001:35). 강의식 수업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미리 개념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원리가 드러나는 자료만 제시해도 되지만, 탐구학습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므로 증거 자료와 탐구 거리가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 자료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자료, 신문, 인터넷 매체 등, 대중 매체의 언어 자료를 탐구학습 자료와 같이 실제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07 개정 중1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품사 단원의 학습 활동이 태권도의 띠를 분류하는 활동, 소설이나 동화의 품사 찾기 등의 활동 등을 제시하여 교과서 학습 활동 중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활동이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송수현 2011:41).

세 번째 특성은 과정성이다. 탐구학습이 강의식, 설명식 수업과 다른 점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김광해 1995:227). 강의식 수업

에서는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탐구 학습의 과정은 자료를 통해 미리 가설을 정하고 그것을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탐구 과정에서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가 강조된다(이관규 2001:35). 이처럼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주제를 탐구하며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자료를 모아,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과학적인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교육에서 사용되는 탐구학습은 타 교과와의 탐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최선희(2016)에서는 국어과의 문법 영역 탐구학습에만 나타나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른 탐구학습과 탐구 대상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언어의 규칙과 원리는 언어생활의 관습, 다양한 국어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이끌어 낸 것이므로 과학적 검증이 쉽지 않으며 지식의 사실 여부 판별 또한 불가능한 것이 많아 문법 탐구 대상은 타 교과의 탐구 대상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최선희 2016:8). 예를 들어, 과학과에서는 ‘물의 끓는점은 100℃다.’처럼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리를 탐구하므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문법 영역의 경우, 사이시옷 규정에서 ‘곳간’, ‘숫자’와 같이 한자어임에도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수의적 규칙이 있어,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

둘째, 지나친 단계화를 지양한다. 문법 탐구에서는 가설 설정을 강조하는 타 영역과는 달리 탐구의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어 지나치게 단계화하는 것을 지양한다. 과학과에서 탐구하는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어려워서 탐구학습 모형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반면에, 문법 영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언어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설 설정- 가설 검증’의 단계를 따로 명시하기보다는 탐구 주제와 적합한 자료들을 가지고 예상한 바에 대한 토의·토론을 통하여 현상을 보다 설명력 있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최선희

2016:14).

셋째, 가설 검증보다는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언어 성찰을 중시한다. 타 영역의 탐구학습 모형은 과정 중심의 특성을 가지며 가설을 설정하여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자체가 중심이 되나, 문법의 경우는 언어 현상에 내재한 규칙과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자신의 언어생활 및 다양한 언어 현상에 적용하고 활용하며 언어 성찰로 확대하는 것이 중시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하는 학습자는 탐구의 과정을 통하여 지적인 발견의 기쁨을 느끼고, 관찰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문법을 대상으로 탐구학습을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문법 현상에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법 수업 현장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학습자가 삶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하연실 2010:43).

III. 국어과 탐구학습 수업의 설계

1. 문법 탐구학습 수업의 교육내용 상세화

탐구 수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흥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김광해 1997:124).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선 국어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본질 	국어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기호 체계로서, 언어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유한 국어분화를 형성하며 발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발견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비교·분석하기 • 분류·범주화하기 • 종합·설명하기 • 적용·검증하기 • 언어생활 성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 발음과 표기 • 어휘 사용 • 문장 담화의 사용 	발음 표기, 어휘, 문장·담화 등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능력을 기르고 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에 대한 태도 • 국어 사랑 • 국어 의식 	국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때 국어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표-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문법 영역 내용 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과 ‘기능’영역에 ‘문법 탐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 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한다. 핵심 개념 중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에서 ‘탐구’는 국어의 구조를 다루는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사고이다. 다시 말해 핵심 개념의 ‘국어 구조의 탐구’는 단순히 국어의 구조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어의 구조에 대해 탐구해 보는 경험까지 포함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적 기능들은 학생들이 문법 교육을 통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능력이거나 탐구하는 과정을 뜻한다(문준식 2018:23). 이를 바탕으로 기능 부분에서 “문제 발견하기, 자료 수집하기, 비교·분석하기,

분류·범주화하기, 종합·설명하기, 적용·검증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로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9).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과목 ‘(2) 국어의 탐구와 활용’의 성취 기준에서 문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	내용 요소	행동 요소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음운의 체계와 변동	탐구하기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	탐구하기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	탐구하기	국어생활에 활용하기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단어의 의미 관계	탐구하기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하기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문장의 짜임	탐구하기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기
[12언매02-06]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	탐구하기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하기

〈표-2〉 ‘언어와 매체’ 과목 ‘국어의 탐구와 활용’의 성취 기준 분석

[12언매02-02] 성취 기준 해설에서 ‘탐구하기’는 ‘품사 분류하기’, ‘품사의 차이에 따라 문장에서의 쓰임 차이 알기’ 등을 포함한다. [12언매02-05] 해설에서는 탐구의 내용으로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짜임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취 기

준의 해설을 보면 ‘탐구하기’가 ‘분류하기’, ‘이해하기’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문법적 기능 중에는 ‘분류하기’만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외의 문법적 기능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설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고력 중심의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서는 문법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아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 시간에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문법적 기능이 표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문준식 2018:25). 따라서 기존 탐구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탐구 학습 과정이 적절히 반영된 활동의 효과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탐구학습 과정이 반영된 활동의 실현방안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김광해(1997)의 탐구학습 모형은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자료 수집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 결론의 일반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하여 이관규(2001)는 ‘문제 제기 및 가설 설정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로 간략화시켰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탐구 과정	활동
문제 정의	문제·의문 사항의 인식, 문제에 의미 부여, 문제의 처리 방법 모색
가설 설정	유용한 자료 조사, 추리, 관계 파악, 가설 세우기
가설 검증	증거 수집, 증거 정리, 증거 분석
결론 진술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 검토, 결론 추출
결론 적용 및 일반화	새로운 자료에 결론 적용, 결론의 일반화 시도

〈표-3〉 김광해(1997)의 탐구학습 모형

단계	문제 제기 및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교사 (15%)	학생 (5%)	교사 (10%)	학생 (30%)	교사 (25%)	학생 (15%)
역할 비율						
세부 내용 및 역할	교사 : 선행 학습 확인 및 연계, 관련 자료 준비 및 제시, 문제 제기, 가설 설정(설명) 학생 : 배경 지식 동원, 문제 제기 동의		학생 :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인 또는 집단) 교사 : 주시 (관찰과 기록), 탐구에 따른 위험 요소 제거		학생 : 가설 검증 및 새로운 문제 제기(개인별 내지 조별 발표), 결론 도출 교사 :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새로운 문제 등의 제기	

〈표-4〉 이관규(2001)의 탐구학습 모형

김광해(1997)가 제안한 탐구학습 모형은 구체적으로 처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에 사회과 및 수학·과학과의 교육에서 활용하던 탐구학습 과정을 그대로 문법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교사는 탐구학습에 있어서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만을 할 뿐이지,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적었다(이관규 2001:46). 이를 보완한 것이 이관규(2001)의 모형이다. 문법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에 맞게 탐구학습 과정을 간략화하고 〈표-4〉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의 역할이 김광해(1997)에서의 모형보다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교사가 개입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김광해(1997)에서와 이관규(2001)에서의 탐구학습의 모형이 학교 문법의 내용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생각했고, 탐구의 과정을 통하여 지적인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하연실 2010:42)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탐구학습 과정이 반영된 활동의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시적인 탐구학습의 활동은 ‘문제 인식-탐구 과정-탐구 결과’ 세 단계로 나누었고, 탐구 과정을 ‘가설 설정-자료 제시-문제 해결’ 세 단계로 다시 나누었다. ‘문제 인식’은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이고 ‘탐구 결과’는 결론을 도출하는 활동이다. ‘탐구 과정’은 ‘가설 설정’, ‘자료 제시’와 함께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인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명시적으로 탐구학습 과정의 단계가 제시된 활동은 과정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탐구 과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유도하였다(황시연 2014:43).

2.1. 명시적 탐구학습

※ 다음을 통해 조사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자(황시연 2014:47).

문제 인식	단어는 ‘최소자립형식’으로 설명된다.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에서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이 ‘하늘이’, ‘맑다’라는 구(句)도 자립적 단위지만 최소의 자립성을 갖는 ‘하늘’, ‘이’, ‘맑다’를 단어로 하고 한다. 이때 조사인 ‘이’도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탐구 과정	가설 설정A	조사는 단어이다.	
	가설 설정B	조사는 단어가 아니다.	
	자료 제시	※ 다음 문장을 형태소 분석하라. ‘하늘이 맑다’	
		자립	실질 하늘 형식 -
	의존	실질 맑- 형식 이, -다	
문제 해결A	‘이’와 ‘-다’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문제 해결B	‘이’와 ‘-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탐구 결과	결론 도출A		
	결론 도출B		

위 예시는 ‘조사가 단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이다. ‘가설 설정- 문제 해결 - 결론 도출’ 모든 단계에서 두 가지 견해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최소자립형식이라는 단어의 정의¹⁾를 통해 과연 조사가 단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제로 제시하였다. 가설로 ‘조사는 단어이다/아니다.’ 두 가지 입장으로 제시하고 ‘문제 해결’과 ‘결론 도출’까지 두 가지 방향으로 일관되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로 든 문장을 형태소 분석하여 자료로 제시하였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활동이 이 활동의 주된 활동이 아니므로,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형태소의 분류를 통해 ‘문제 해결’에서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 동질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앞에 붙는 말의 자립성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문제 해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토론하는 것이 이 문항의 목표이다. ‘가설 설정’부터 ‘문제 해결’까지 학습자들이 선택한 가설을 토대로 의견을 정리한 후 학습자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처럼 문법 지식이나 규칙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탐구 과정을 거쳐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황시연 2014:48).

2.2. 비명시적 탐구학습

※ 다음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대해 탐구해 보자(황시연 2014:53).

1) 학교문법에서는 단어를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의이다. 단어를 본질적으로 정의한다면 ‘최소 자립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ㄱ) 아기의 손은 매우 귀엽다.
 농촌에서는 지금 손이 모자란다.
 나는 지금부터 그 사람과 손을 끊겠다.
 (ㄴ) 배(船), 배(腹), 배(梨), 배(倍)

- (1) (ㄱ)과 (ㄴ)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각각 말해 보자.
- (2) (ㄱ)과 (ㄴ)에서 제시된 단어가 갖는 의미 관계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 (3) (ㄱ)과 (ㄴ)에서 제시한 단어가 서로 의미상 관련성이 있는지 다음 기준표로 나누어 보자. (김광해 1997:257 재인용)

1	2	3	4
공동차원이 있는가?	있다	그 차원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 일반적 의미
		그 차원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지 못한다.	→ 다의어
	없다	→	동음이의어

- (4) (3)을 통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대해 말해 보자.
- (5) 일상에서 쉽게 쓰이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찾아보자.

위 예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관해 탐구하는 활동이다. 단어 간에 의미 관련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먼저,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예를 제시하여 각각의 의미를 확인하고 논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 (2)’에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의미 관계가 다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차이점을 학습자들이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 (2)’에서 제기한 문제 인식을 ‘활동 (3)’에서 검증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미상의 공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의미상의 공통이 있다면 다른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일반적 의미와 다의어로 구분하고, 의미상의 공통점이 없다면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 기준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차이를 탐구한 후,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대해 말하는 활동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탐구한 결과를 통해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찾아서 일반화할 수 있다(황시연 2014:54).

3. 탐구학습의 의의와 한계

위에서 제시한 탐구학습 실현방안을 통해 학습자들이 언어 현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여 규칙이나 원리를 도출하는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본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가설 설정’에서 학습자의 활동 폭이 매우 좁을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으로 탐구학습 과정의 단계가 제시된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수준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가설을 미리 제시하였다. 또한, 비명시적으로 탐구학습 과정의 단계가 제시된 활동에서는 명시적으로 탐구과정을 제시하지 않아, 가설을 유도하기엔 난이도가 높아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제시한 국어자료 이외에 다양한 자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국어 생활의 실제 양상에서 자료를 찾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황시연 2014:55).

학습자들의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탐구학습 모형을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탐구 활동을 도입하는 것도 문법 교육의 실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명 의미가 있다. 기존의 탐구학습 활동처럼 사고력 신장에 이바지하면서도 새롭고도 적절한 탐구 활동이 활발히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문법 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은 분명 모색될 필요가 있다.

IV. 국어과 탐구학습 수업의 반응과 효과

1. 탐구학습 수업에 대한 반응

문준식(2018)에서는 문법 탐구학습 수업을 수행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교사 설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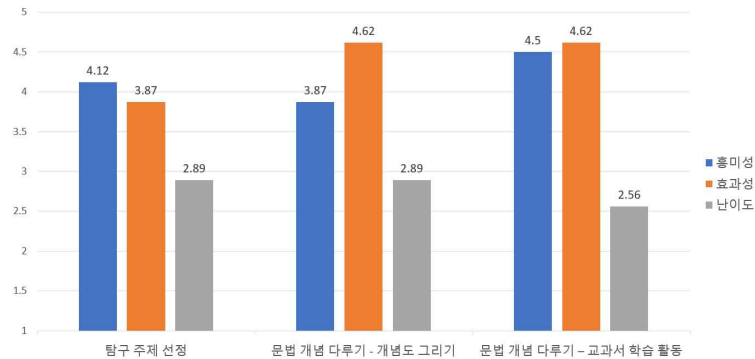
설문 문항	‘예’ 답변 비율
1. 문법 탐구 프로젝트 수업이 실제 문법 수업에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5%
2. 수업 준비(학습 목표 수립하기, 탐구 주제 및 내용 개발하기, 차시별 학습계획 및 학습지 마련하기, 수행 평가 채점기준 마련하기)가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0%
3. 탐구 주제 선정(프로젝트 개요 설명하기, 탐구 주제 인식하기, 탐구 주제 선택하기)이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0%
4. 문법 개념 탐구 중 문법 개념도 그리기가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5%
5. 문법 개념 탐구 중 개념 이해 문제 해결하기가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6. 실생활 적용검증하기(가설 설정·검증, 결론 도출)가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0%
7. 탐구 활동 공유 평가(발표·평가하기)가 실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0%
8.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문법 탐구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 할 것입니까?	90%

〈표-7〉 교사 설문 결과(문준식 2018:82)

교사 설문 결과를 보면 연구자가 설계한 문법 탐구 프로젝트 수업의 현장 활용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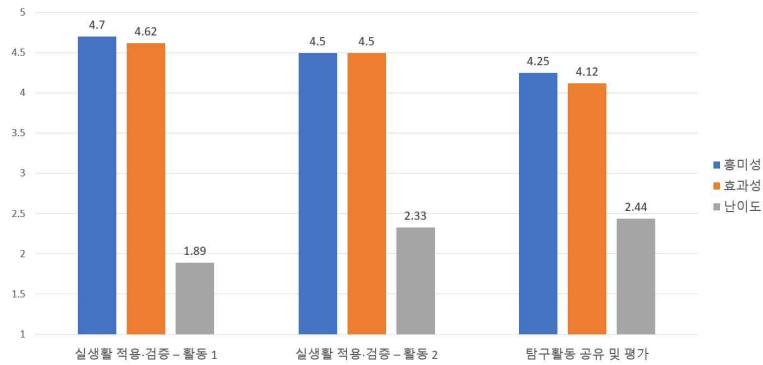
에서 이미 교사들이 활용하고 있거나 실생활과 관련이 높은 활동 등은 문법 교육에서 강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법 탐구학습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사들도 있었다. 부정적인 답변의 이유로는 ‘새로운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학생 수준에 부적합하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문법 탐구 프로젝트 수업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활동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수준 차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초 학력 학생들을 고려한 문법 수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문준식 2018).

문준식(2018)에서는 문법 탐구학습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학생 설문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



〈도표-1〉 학생 설문 결과 1

2) 1, 2번 문항과 3번 문항에 응답한 번호와 점수 배점이 다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점수로 부정적인 반응이 낮은 점수로 표현되게 하기 위함이다. 1, 2번 문항은 1번에 응답할 경우 5점, 2번에 응답할 경우 4점, 3번에 응답할 경우 3점, 4번에 응답할 경우 2점, 5번에 응답할 경우 1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3번 문항은 1번에 응답할 경우 1점, 2번에 응답할 경우 2점, 3번에 응답할 경우 3점, 4번에 응답할 경우 4점, 5번에 응답할 경우 5점을 각각 부여하였다(문준식 20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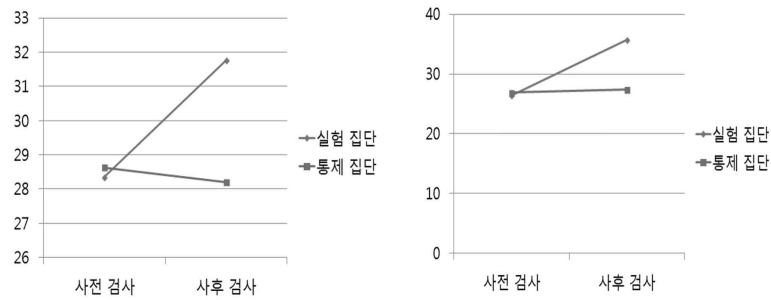


〈도표-2〉 학생 설문 결과 2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효과성 부분에서는 대체로 4점대인 것을 보아 학생들이 대체로 수업이 흥미로웠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에 대한 난이도 측면에서는 점수가 1점 후반에서 2점 후반인 것을 보아 ‘보통’과 ‘어려웠다’의 사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실생활 적용-검증하기 활동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실생활 적용-검증하기 활동이 흥미성과 효과성 부분에서는 평균점이 높아, 어려웠지만 흥미롭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탐구학습 수업의 효과

위의 학생 설문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문법 탐구학습 수업이 다소 어렵지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법 탐구학습 수업의 효과가 어떤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문법 탐구학습 수업의 첫 번째 효과는 문법 탐구학습이 문법 학습 동기 영역 중 ‘자기 효용’과 ‘존재 가치’ 향상에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하성욱 2015).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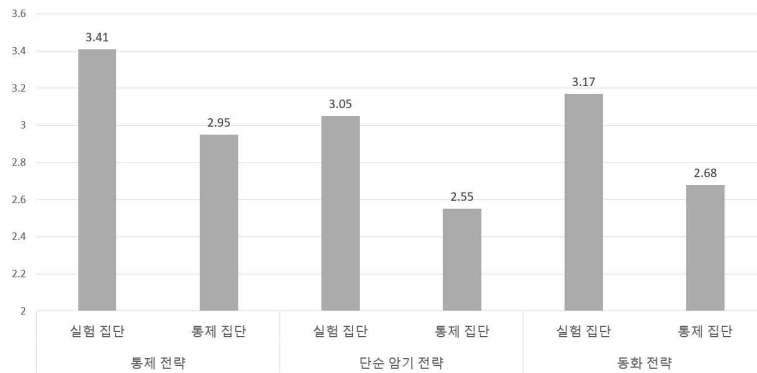


〈도표-3〉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자기 효용'(왼쪽)과 '존재 가치'(오른쪽) 점수 (하성욱 2015:49-50)

〈도표-3〉을 보면 탐구학습 수업을 듣지 않은 통제 집단의 '자기 효용' 점수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탐구학습 수업을 들은 실험 집단의 점수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제 집단의 '존재 가치' 점수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실험집단의 점수는 대폭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직접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문법 탐구학습 수업이 학습 동기 '자기 효용'과 '존재 가치' 향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에 있어 문법 탐구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성욱 2015).

문법 탐구학습 수업의 두 번째 효과는 문법 탐구학습 수업을 한 집단의 학습자들이 더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임영미·오현아(2013)에서는 문법 탐구학습 과정에서 활용된 학습 전략을 통제 전략, 단순 암기 전략, 동화 전략 세 가지로 보았다. 통제 전략은 자기가 학습해야 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전략이고, 단순 암기 전략은 단기 기억 속에서 정보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습 전략이며, 동화 전략은 학습 자료를 의미

있게 하려고 새 정보를 이전 정보와 관련지어서 특정한 관계를 지니도록 하는 학습 전략이다(임영미·오현아 2013). 탐구학습 수업을 진행한 후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 집단의 모든 학습 전략의 사용량이 통제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4〉 집단 간 학습 전략 사용량

〈도표-4〉를 살펴보면 모든 학습 전략에서 실험 집단의 사용량이 통제 집단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탐구학습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이를 기존의 지식에 통합하여 규칙화해야 하므로 통제 전략이 많이 사용되는 반면 통제 집단의 경우는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통제 전략의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것을 보인다. 또한, 문법 탐구학습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과 연결 지어야 하므로 동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통제집단은 학습자가 수업 시 배울 내용을 자신의 기존 지식에 연결 짓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동화 전략의 사용량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법 탐구학습 수업은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는 통제 전략과 동화 전략의 사용뿐만 아니라 단순 암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 전략의 사용량 또한 높지만,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순 암기 전략의 사용량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법 탐구학습 수업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실험 집단의 학습자가 더 많은 학습 전략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임영미·오현아 2013).

VI.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 문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탐구학습의 이론과 실재를 알아보았다. 문법 영역에서 탐구학습을 활용한 수업을 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학생들은 수업을 흥미롭게 느낀다. 이는 탐구 수업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강의식’, ‘주입식’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문법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시를 찾는 활동보다 주어진 예시를 통해 직접 문법 원리를 도출해내는 과정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뿐더러 학생들이 더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문법 탐구학습 수업은 ‘자기 효용’과 ‘존재 가치’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는 문법 교육에 있어 문법 탐구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탐구학습 수업에는 위와 같은 장점들이 있으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운영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나 예시가 많은 것은 물론 학생

들의 활동에 개입해야 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는 학생들의 수준에 부적합한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사가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하므로 쉬운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탐구하는 과정 자체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효과와 문법 영역의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보면 교육과정에서 문법 탐구학습을 꾸준히 권장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국어 탐구학습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문법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탐구학습 모형을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탐구 활동을 도입하는 것도 문법 교육의 실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명 의미가 있다. 기존의 탐구학습 활동처럼 사고력 신장에 이바지하면서도 새롭고도 적절한 탐구 활동이 활발히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문법 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은 분명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속될 탐구학습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교육부. 2015.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김광혜. 1992. “문법과 탐구학습”, 「신청어문」 20, 81-101.
김광혜. 1995. “언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209-254.
김광혜. 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문준식. 2018. 「문법 탐구 프로젝트 수업 설계 및 현장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현. 2011. “문제중심학습에 기초한 문법영역의 교수학습활동 구안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관규. 2001. “학교 문법 교육에 있어서 탐구학습의 효율성과 한계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어교육』 106, 31-63.
- 임영미·오현아. 2013. “문법 탐구학습 과정에서의 중등 학습자의 학습 전략 사용 양상 탐색”, 『새국어교육』 97, 415-444.
- 최선희. 2016. “문법 탐구학습 모형의 비판적 고찰.” 『새국어교육』 109, 419-451.
- 하성욱. 2015. “문법 탐구학습의 학습 동기 증진 효과 연구”, 『한어문교육』 33, 39-52.
- 하연실. 2010. “실제 언어 생활 중심 문법 탐구학습” 『교사교육연구』, 49(1), 29-47.
- 황시연. 2014. 「문법 교과서에서 탐구학습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돈을벌’ 학술제

제6회 돈을별 학술제 감상문

유민환(14)

쌀쌀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쯤, 2018년 제6회 돈을별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10월 31일, 11월 1일 양 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첫날엔 지난 학술제와 달리 임용 특강이 아닌 TBC 황재섭 PD님의 취업 특강이 있어 방송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둘째 날에는 논리적 글쓰기 대회와 창의/융합 국어수업발표대회에 각 학년들이 참여해 자신이 갖고있는 기량을 펼치는 기회를 가졌다.

학술제 첫날이 밝았다. TBC 황재섭 PD님께서 오셔서, 방송계열에 관한 특강을 하셨다. 황재섭 PD님은 먼저, 모든 것을 글쓰기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계획한 후 초고를 쓴 후 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든 것과 같다는 것이다. 황재섭 PD님께서 자신이 PD로서 방송을 만들 때, 방송에 대한 주제를 선정 후 계획을 수립한 다음 초고와 같은 기능을 하는 콘티를 만든 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셨다. 글쓰기 과정이 방송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삶 또한 글쓰기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라는 충고도 해주셨다.

방송계열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PD의 길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뉜다고 하였다. 프리랜서의 길을 걷는 경우, 처음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팀을 꾸려 하기에 성공을 한다면 부와 명예를 많이 쌓을 수 있다. 방송국 입사의 경우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현재 PD를 뽑는 인원이 상당히 적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요즘은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직사이트에 올려 헤드헌터를 통해 PD를 뽑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PD를 준비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생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황재섭 PD님은 처음에는 방송계열이 아닌, 금융계열로 나아갈 생각을 하셨었다. 하지만 당시 IMF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 영화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흥미가 생겨 지금 PD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사범대 학생으로 임용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서 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말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없고 위기는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닥뜨린다.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준비하여, 대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외길로 가는 것이 아닌 주변을 돌아가며 한 번쯤은 돌아가는 선택이 필요함을 한 번 더 생각을 곱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날에는 각 학년의 갈고닦은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1학년의 논리적 글쓰기 대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1학년의 논리적 글쓰기 대회 현장을 보니 3년 전 신입생으로 대회에 참여하

던 내 모습이 얼핏 떠올랐다. 그 당시 내 생각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펼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려웠고, 글도 상당히 서툴렀던 모습을 생각하니 속으로 많이 부끄러웠다.

창의/융합 국어수업발표대회에서는 기존의 수업발표대회에서 현재 교육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창의/융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매해 지켜만 보던 수업발표대회에 내가 직접 참여를 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막상 준비를 해보니,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하지 않았다. 수업발표를 위해 단순히 지도안을 만들고, 지도안에 맞춰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업에서 다룰 지식을 어떻게 명쾌하게 전달할지 녹여내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창의/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일반적인 수업발표보다 더욱 어려웠던 대회 준비였다.

수업발표대회에서는 문법과 코딩을 연계한 문법 영역 팀과 화법과 사회를 연계한 화법 영역 두 팀이 있었다. 각 팀 모두 자신이 준비한 수업에 맞춰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영역에서 연계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창의적인 요소마저 가미가 되어 수준 높은 수업을 보여주었다. 수준 높은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수업발표 내내 여실히 드러나서 더욱 보기 좋았던 대회였다. 대회다 보니 1등과 2등이 나뉘게 되었지만, 모두 다 1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두 팀 모두 좋은 수업을 보여주었다.

수업발표대회를 준비하고 해보면서, 매년 학생의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몇 년 전 학술제에서 보여주던 수업발표대회와 달리 수업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고, 교사의 능력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해도 무관할 정도로 뛰어났다. 또한, 다양한 교구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구성을 할지 노력하는 모습이 내년 수업발표대회를 더욱 기대케 하였다.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학생들을 보며, 내 자신을 성찰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수업발표대회였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부는 시기에 열린 학술제였지만, 학생들이 노력하는 열정만큼은 어떤 때보다 뜨거웠다. 학술제를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갈고닦은 기량을 펼친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하였지만, 감동을 많이 받았다. 국어교육과 한 해 제일 큰 행사에 재학생 모두 다 참여해준 모습도 좋았지만, 행사를 위해 모두 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생각보다 학술제 대회의 결과가 좋았던 학생도 있었을 것이며,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보다는 그 노력했던 과정을 누구나 격려하고 응원하였을 것이다. 내년 2019년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제7회 돈을별 학술제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미래를 밝히는 교육이란 무엇일까?

정민지(18)

첫째 대한민국의 교육은 진학, 즉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수업 이외의 사설 인터넷 강의와 각종 학원이 증가하면서 사교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 좋은 대학, 보다 나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각 학교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야간 자율 학습 또는 그 이후의 심야 자율 학습을 통해 다른 나라와 달리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뿌리에서 성공의 기준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사회는 오래전부터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자존심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로 취업 면접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대학의 이름이 중시되고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해 능력이 뛰어나도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학 진학 또한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인 지역에서는 성적이 좋아도, 학교의 이름 때문에 본인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밀려 불합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제치고 밟지 않으면 자신이 불리한 경쟁을 배우게 되었고, 우리는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을 받아 온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훈련’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현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훈련이 아닌 교육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문득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그 방법이다. 현재 몇몇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지원자의 학력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지원 분야에서의 능력을 통해 채용을 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현상이 시작되는 것에 맞게 우리의 교육도 입시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각 학교마다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영수 위주의 현재 교육과 달리 일찍이 진로를 잡은 학생들에겐 그 분야별 수업을 듣게 하고,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을 위해 그에 맞는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은 좋은 대학을 진학해서 대기업에 취직하여 몇 억의 연봉을 버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란 본인이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펼쳐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 아니 훈련에서 벗어나 본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성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어교육과 수업실연대회(최우수상)
사범대학 수업발표대회(우수상)

화법 영역 수업지도안

유민환(14), 이기홍(15)
박혜민, 이선운(16)
정혁진, 진은정(17)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명	계명중학교	대상	1학년 6반	교사	이선운
일시	18. 11. 01.	장소	영암관 354호	교과	국어1-2
대단원	4. 우리말과 친해지기	소단원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차시	7/7
성취기준	[9국04-04]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목표	(1)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코딩 놀이를 활용해 다양한 품사가 쓰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준비물	수업지도안, PPT, 영상자료, 놀이판, 놀이말, 컨트롤러, 놀이카드, 자석, 학습지				

단계	수업 요소	시간 (분)	교수·학습 과정		수업 형태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게 하고, 핵심적인 학습 요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설명

	학습 동기 유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딩 놀이 설명 동영상을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딩 놀이 설명 동영상을 보며 놀이 방법을 숙지한다. 	
	학습 목표 확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목표를 안내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학습목표 (1)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코딩 놀이를 활용해 다양한 품사가 쓰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전개	코딩 놀이로 문장 만들기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 모둠을 만들고 모둠별로 모둠장을 뽑게 한다. 코딩 놀이를 통해 모둠별로 문장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모둠장을 뽑는다. 코딩 놀이를 통해 모둠별로 문장을 만든다. 	단체 활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코딩 놀이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날말카드가 무작위로 배치된 놀이판을 중앙 책상에 놓고, 컨트롤러와 놀이말을 모둠별로 하나씩 나눠 갖는다. 각 모둠의 모둠장이 나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 출발점을 선택한다. 모둠별로 기본 명사카드를 1장씩, 이동카드를 6장씩, 특수이동카드를 3장씩 나눠 갖는다. 놀이판의 날말카드 배치를 참고하여 모둠별로 날말카드 획득을 위한 코딩 전략을 짠다. (전략 짜기 시간 5분) 정해진 순서대로 컨트롤러를 공개하며 놀이말을 움직인다. 한 바퀴가 끝나면 코딩 조합을 바꾸어 다시 한 바퀴를 돈다. 각 모둠원들은 자신의 모둠이 획득한 날말카드로 문장을 조합한다. ⑤, ⑥, ⑦의 과정을 반복한다. 다섯 바퀴를 돌고 나면 놀이를 멈춘다. </div>		

	문장 품사 분석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완성된 문장을 칠판에 붙이고, 모둠원 한 명이 나와 설명하게 한다. • 문장에 쓰인 품사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는 각 2점, 조사는 각 1점, 관형사, 부사는 각 3점, 감탄사는 각 4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점수가 높은 모둠을 '품사왕'으로 선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완성된 문장을 칠판에 붙이고, 모둠원 한 명이 나와 설명한다. • 각 문장의 품사를 분석하며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본다. 	발표, 설명
정리	형성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를 나눠주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를 보며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본다. 	문제 풀이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확인한다. 	설명

학교 현장 탐방 보고서



현행 국어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학습자 중심 수업을 중심으로 -

김하정('15), 김민경, 김선영, 정현지('16)

1. 수업 참관 배경

최근 학교 교육개혁 논의로서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학생 중심 수업이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토론,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학생 중심 수업에서는 교수자인 교사가 지식 정보를 학습자인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전통적 수업 방식을 비판하며,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보다 학생의 받아들이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바라본다. 즉, 학생 중심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 정보처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강조하며, 나아가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학습 과정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학생 중심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수업 모

형과 교수 설계가 등장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요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변화상이 학교 현장에서 일반화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과연, 학교 현장은 교실 안에서 현 교육부가 강조하는 수업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학생 중심 수업의 목표를 잘 구현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집부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수업에 직접 참관한 후,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관한 국어수업은 심인고등학교의 1학년 2반이며, 교사 인터뷰 대상은 심인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수석교사 김종두 선생님이다. 수업 참관은 김종두 선생님과 합의하에 학생들에게 예고 없이 이루어졌기에 좀 더 생동감 있는 수업에 참관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 다룬 영역은 ‘시조’(時調)를 이해하는 고전문학 단원이었으며, 수업 모형은 하브루타 기반의 학습자 중심 토론수업이었다.

선생님 인터뷰 질문의 경우 원활한 인터뷰 진행과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질문의 항목을 사전에 전달했고, 수업 참관 후 수업과 관련된 것과 교사의 답변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모두 녹음했으며, 이후 전사하여 내용을 선별, 정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현재 국어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II. 간담회 내용

질문 ①. 선생님께서 하시는 학생 중심 수업 모형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은 수업에 질문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우리나라의 교실은 대부분 듣는 교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어야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하브루타식 수업을 4년 전부터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 협력하고 토의하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친구 과외하기’라는 방법을 통해 친구를 서로 학습자원으로 활용하여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②.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많은 질문을 받아 그중에서 학생들과 한 가지를 골라 하나의 질문만 해결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질문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나머지 질문들은 수업시간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루기 어려울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 한 개를 다루어 여러 갈래로 확산시키는 것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할 때 학생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질문을 많이 꺼내게 하지만 선택은 한 개만 하여 집중하도록 합니다.

질문 ③.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 만들기과 토론하기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수업에 이론수업을 거의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하는 이론을 습득했는지 확인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수업을 통해 이론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업을 이론과 설명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면 교사의 발화가 많아집니다.

교사의 발화가 많아지면 구조적으로 교사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순간 학생들은 소외되어 집니다. 또한 그러한 교사중심의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지만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알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먼저 한번 해보는 수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도록 하여 아는 것은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도록 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한 학생들의 시험 성취도가 분석과 설명 중심의 수업의 학생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방법이 다를 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국어의 요소는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수혜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④.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하려면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교사들은 이 수업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많이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또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현재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능이나 시험에 교육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가 효율적이지 않는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 많은 작품을 다루어주는 것이 학생들의 시험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하나의 작품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많이 감상하다 보면 감상능력이 확산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

지만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현재도 논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의 수업이 서서히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교사가 지쳐 수업을 못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 중심 수업은 교사의 성장과 행복감,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최근 학생들이 수능에서 만나는 작품은 모두 처음 보는 작품이기에 해석은 학생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학생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학생 중심 수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 방식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고 이에 대한 답은 없지만 교실의 분위기가 변하면서 시대의 큰 흐름은 계속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수업 흐름의 과도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질문 ⑤. 처음 이 수업 방식을 교실에 도입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을 텐데 어떻게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셨나요?

그것이 학생 중심 수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의 설명을 필요로 하고 활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희들은 생각이 궁금하고 중요하지 답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생각을 서로 교류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수업을 하자.”라고 이야기 하며 수업을 했습니다. 처

음에는 수업을 계속 의심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활동을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조금씩 해보면 해볼수록 수업시간이 빨리 가고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학생들끼리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보다는 쉽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더욱더 학생들끼리도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나면 오늘 참관 하셨던 수업과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개학하고 4월 5월이 되면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⑥.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인가요? 그 영역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나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문법 영역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문법을 몰라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사나 어미와 같은 개념은 영어에도 없기 때문에 영어문법을 먼저 배우고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수업 방식이 우선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의 문법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사나 어미가 한국어에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게 한 후,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며, 그것을 책 속에서가 아닌 실생활과 연계하여 발견하도록 합니다. 실생활에서 찾은 문법에 어긋난 단어나 맞춤법을 바르게 고치거나 탐구해보면 상점을 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말 퀴즈를 해보거나 스스로 틀린 문법을 고쳐보기, 예문 만들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현대시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현대시 수업은 항상

교사의 설명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르는 시가 나오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를 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저는 현대시를 배울 때 첫 시간에 시를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의 방식대로 해석하도록 유도합니다. 학생들이 쓰기를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시를 접했을 때 느꼈던 생각을 쓰도록 합니다. 한 차시 동안 시에 대해 해석한 후, 시를 읽으면서 어려웠던 시어를 뽑아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적어 친구들과 비교해기를 합니다. 그 후에 교사가 마무리와 함께 ‘교사의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사의 해석이 정답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수업을 한 후 보면 학생들의 해석과 일반적인 해석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⑦.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들이 지녔으면 하는 자세나 행동이 있나요?

수업을 구성하고 꾸려나갈 때 학생들을 단지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마음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학생을 역량과 능력을 믿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발산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공감능력, 소통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내려가 학생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성장하고 교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공감과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시절에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수업의 방식이나 교육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교사들의 학

생 시절과 아주 다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업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이나 수업 개선의 움직임에 대한 책을 읽고 흐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Ⅲ. 학습자 중심 수업의 문제점과 전망

앞서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수업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변화는 더디게 흘러가고 있고, 교실은 지금 과도기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설명과 분석 중심의 수업과 학생 중심의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은 교사의 선택에 따라 수업의 방식이 변화하며 학생들은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학습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스스로 배운다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생 중심 수업의 논리대로 학습 전반에 걸친 주도성과 의사결정을 보장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중심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있다. 융합수업이든, 학생들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문제이든, 이러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선 교사의 지속적인 수업 연구와 수업 자료의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업과 행정업무를 하며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수업과 업무 부담은 학생 중심 수업에 앞서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업 중 학생들이 참여할 활동을 제작하고 이끌어갈 때, 교사들의 역량 또는 경험 부족 문제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수업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경험들

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교실 분위기, 학생 문화에 맞추어 새로운 활동할 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수업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자신의 역량 또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 수업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역량 및 경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들이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과 중 과도한 업무 속에 교사들이 수업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근 교육과정이 과거와 큰 변화가 있다면 교사가 그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경직된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행복한 교실, 재미있는 수업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두 가지의 수업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교실 속에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사의 수업 연구 부담과 교사의 역량 또는 경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생각해야 했다.

학생들이 수업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에 부담을 느끼며 학습 전반에 걸쳐 주도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수업을 어렵게 느끼는 것에 대한 문제는 김종두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수업을 구성하기 전에 학생들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대해 공유하며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답 찾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수업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생각한다. 두 가지의 수업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최대한 학생 중심의 수업에 적응하여 스스로 움직이도록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기존에 존재하던 수업이 아닌 새로운 국어수업을 하고 있는 만큼 수업

연구와 자료 준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김종두 선생님 역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업을 연구하고 학생들이 학생 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 연구에 시간을 쏟아붓고 계신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처음 자료를 만들고 연구하는 것은 힘들지만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수업을 하고, 그 뒤에 수업 진행은 기존의 수업보다 오히려 편하기에 좋은 수업과 자료 준비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셨다. 또한 요즘은 학생 중심 활동에 관한 다양한 수업 모형이나 교수 설계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처음에 조금만 고생한다면 좋은 수업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다. 수업 연구와 자료 준비는 기존의 교실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과목의 교사와 함께 협의를 통해 분량을 나누거나 함께 연구를 하고 자료를 준비한다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좋은 수업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IV. 맺음말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동료들 간의 협력을 길러주지만 동시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었고, 예전의 강의식 수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교실은 교사의 수업 방식에 맞춰 변화되어야 하기에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강의식 수업을 강조하는 교사와 학생 중심 수업을 강조하는 교사 사이의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교사는 기존의 업무와 함께 수업과 교재 연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은 변화하고 있는 교실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공감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교사와의 소통 속에서 수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조금 더 빠르게 수업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속에서 교실 안에 학생 중심 수업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교사 중심의 교실이 변화하기 위해서 수업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업무와 병행해야 하기에 교사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많은 교사가 협의하여 함께 연구한다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좋은 수업 나눔 워크숍’ 후기

남기범(13)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날씨는 구름이 살짝 있었으나 좋았다. 10월의 선선한 가을 날씨에 내가 말이라도 된 마냥 나를 살찌워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울리는 알람 소리는 ‘지금 이 제시간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외치고 있는 듯했다. 그 소리를 더는 무시하지 못하고 일어나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어느새 경대병원 역에 도착했다. 경대병원 역에서 나와 목적지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학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강연장 찾는 것을 헤매어 학우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어보고 난 뒤에야 강연장에 도착했다. 강연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주제로 대명공연예술센터의 김재만 센터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다. 강연 내용 하나하나가 놓치기 아까운 주옥같은 얘기라 시간이 금방 흘렀다.

강연이 끝나고 난 뒤 본격적으로 좋은 수업 나눔을 들으러 이동했다. 많은 수업들이 있었으나 시간상 참관할 수 있는 수업은 두 개밖에 되지 않았다. 이 점이 참 아쉬웠다. 수업을 참관하고 나니 더욱 아쉬운 마음이 컸다. 모두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관했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고 느껴지는 수업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는 문학수업에 사용하면 효과적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이다. 학창시절 내가 받았던 수업에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언제나 고역이었다. 45분 또는 50분 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소설을 읽는 것은 수면제나 다름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위의 방식,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를 통해 소설을 읽는다면 학생들이 소설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인물의 심리상태나 심리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어 소설을 읽는 재미를 알려줄 수 있다. 교사는 영화에 등장하는 기쁨, 슬픔, 까칠, 소심, 버럭 캐릭터 사진을 붙인 전지를 만들어 조별로 나눠준다. 조원들은 소설을 읽으며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장면이나 대사를 전지에 있는 캐릭터 특성에 맞춰 적으며 읽기만 하면 된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소설을 읽는 재미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꼭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폼사 롤렛판’을 활용하여 문법 수업을 하는 것이다. ‘폼사 롤렛판’은 9폼사가 적힌 롤렛을 돌려 나온 폼사를 적고 그 폼사에 속하는 단어를 적거나 여러 번 롤렛을 돌려 나온 폼사들을 모아 문장을 만드는 등 재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폼사를 익힐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문법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수업 중 하나이다. 국어 수업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문학 수업이나 문법 수업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중 문법 수업에 대한 좋은 기억은 찾기 힘들 것이다. 문학 수업은 나름 작품의 주제적 해석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 하나의 정답을 찾는 수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법 수업은 수학적인 성향이 강해 정답이 존재하여 학생들은 정답을 찾도록 수업을 받는다. 문법이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정답이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처럼 다양한 해석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문법 수업은 어려운 내용을 암기하여 맞춰야 하는 수업이었을 것이다. 수업 나눔 한마당에서 이 문법 수업을 듣기 전에

는 문법 수업은 문학 수업과 다르게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수업을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참관 후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느낄 수 있었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을 꿈꿀 것이다. 좋은 수업을 받고 교사가 되고 싶었던 학생들은 그 영향력을 학생들에게도 나눠 주고 싶어서일 것이고, 나처럼 좋은 수업이라곤 일찍 마쳐주는 것밖에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은 교사가 되어 학생 때는 받지 못했던 좋은 수업을 해 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참관했던 수업들이 ‘좋은 수업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된 것 같았다. 수업을 참관할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도 기억에 남는다.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설계하여 수업 때 사용해도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좋은 수업을 만드는 것은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한 선생님이란 생각이 들었다. 즉 ‘좋은 교사가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느낀 유익한 경험이 됐다. 후에 이런 기회가 다시 있다면 꼭 참여해보길 권하고 싶다.



자유발언대

학생회와 함께 즐거운 2019년을

이기홍(15)

유난히도 변덕스럽던 날씨의 겨울이 지나고 나니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참 재미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복학생 신분으로 과에 들어오게 되어서 처음 보는 학우들과 수업을 듣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며, 정든 동기들을 떠나보내는 다사다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단점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우치게 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를 스스로 알아가는 와중에 학생회장이라는 큰 기회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제가, 한 과의 학생회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회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 학생회장들이 닦아놓은 전통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요청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즐거움이 가득한 2019년을 국어교육과 학생회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 혼자 우리 과를 이끌어 간다면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몇 번이고 말했듯 학생회와 같이 즐거운 한 해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꼭 지키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9년이 저에게는 참 설렙니다. 누군가는 신입생이 되고, 누군가는 4학년이 되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학우들의 대표가 되어서 한 해를 즐겁게 같이 보내게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올 수 없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어교육과 학우들이 원하는 2019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언젠가 학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저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밝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교사’라는 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고윤정(15)

국어교육과에 온 나는 1학년 입학 때부터 교사라는 직업은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다. 친구들이 임용을 준비한다고 할 때 나는 꿈이 없어 방황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4학년이 교육실습 갈 때가 되었다. 교사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으니 남들과 다르게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는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부담감이 컸다. 그 큰 부담감을 안은 채로 ‘서대구중학교’로 향했다.



5월 7일 처음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모두 긴장감이 맴도는 도서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후 교생실습실로 향했다. 낯선 사람들과 환경,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단 몇 시간 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교생선생님들끼리 게임을 할 만큼 친해져 있었다. 아이들도 복도를 돌아다니는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말을 걸었고 덕분에 첫 주부터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첫째 주는 학교 중간고사 기간으로 본격적인 일정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 부감독의 역할을 받았다. 그 외에 시간에는 중간고사 문제내기, 교서관 생각하기, 독후감 첨삭 등 과목별로 과제가 주어졌다.



5월 둘째 주, 대망의 첫 수업이 있던 날이었다. 이제껏 강의실에서만 하던 수업을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러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 좋은치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교실에 들어섰다. 아이들은 푹망푹

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긴장감 속에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은 예상과 다르게 순조롭게 흘러갔다. 발표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이끌어가고 조는 아이가 있으면 글을 읽어보게 하는 등 생각보다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첫 수업을 즐겁게 끝냈다.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어떻게 수업해야 아이들이 좋아하고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수업 도중 농담을 던지고 시간이 남으면 나의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수업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셋째 주가 되었고 수업에 적응이 되었을 때 동아리 보조교사, 교문지도, 급식지도, 청소지도, 조종례, 공문서 작성 등 수업 외적으로 교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배웠다.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들과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국어가 아닌 수학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화장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드디어 교육실습의 평가 시기인 마지막 주차를 맞이하였다. 내가 맡은 갑종수업이 있는 주였다. 교육실습생들을 대표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수업보다도 공들여 준비했다. 하루 종일 교구를 준비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도서관으로 내려와 수업실연을 해보기도 하며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 노력 끝에 5월 31일, 성공적으로 수업을 마쳤다. 갑종수업을 마지막으로 모든 실습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과의 이별도 다가왔다. 교생실습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준비로 분주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우리 반 교실은 우는 소리로 가득했고 서로 고맙다는 말을 하며 언젠가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만나자는 약속을 한 후 학교에서 나왔다.

그렇게 짧으면서도 긴 교육실습이 끝났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정신없이 보냈으나 행복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같은 꿈을 꾸

는 좋은 동료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우리 교생들을 후배를 보듯이 봐주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던 선생님들, 나도 선생님이라며 예쁜 모습으로 앉아 있고 따라주던 많은 아이들까지. 교사로서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든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덕분에 현재는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교육실습을 다녀오면 흔히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교육자에 대한 꿈에 확신을 갖는 사람, 교육자에 대한 꿈을 저버리는 사람, 이도저도 아닌 방향하게 되는 사람. 실습을 다녀와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실습을 나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실습을 소중한 경험의 기회라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은 조언을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부딪혀보며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지구 반대편에서 꿈을 찾고 돌아오다

김민경(16)

어느덧 3학년 1학기가 끝나가고, 그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기 시작했다. 여태까지의 나는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꿈이 커질수록 내가 '어떤'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양한 경험을 직접 느껴보고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고, 교사가 되었을 때도 어떤 꿈을 꾸고 나아갈지 나의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싶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하던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처음 해외로 나가보는 것이라 두려움도 있었고, 뻣뻣한 일정을 보며 과연 내 전공이 영어도 아닌 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렇게 고민하던 도중, 교사가 되겠다는 내가 이렇게 좁은 세상만을 보고 사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넓고 다양한 경험을 전달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교육관, 꿈을 계획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식견과 안목을 기르겠다는 것이 나의 목표였고,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호주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호주'

라는 나라를 알고 있긴 하지만, 호주의 교육제도와 같은 부분에서는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에 자세히 사전 조사를 해 가야 했다. 호주는 다문화교육, 원격교육, 지속가능성교육 등 현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교육들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교육제도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과연 어떤 것들을 배우고 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다. 이러한 기대를 한껏 안고, 장장 11시간의 비행을 통해 호주로 도착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번 선정된 멜버른이다. 그곳에서 만난 멜버른 대학교는 학습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었다. 멜버른 대학교는 시드니 대학교와 함께 호주를 대표하는 명문대학교라고 하는데, 몇 개 없는 호주의 대학들 중 멜버른 대학교와 시드니 대학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교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자유로운 휴식 공간, 그리고 드라마, 음악, 미술, 프로젝트 강의실 등 다양한 강의실을 제공하고 한 가지 과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결합하여 강의실을 꾸며놓은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다. 책상이나 프로젝터의 사용과 이동이 자유롭고, 강의실의 좌석 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점도 좋았다.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았다면 좋았을 것 같고, 또 멜버른 교육 대학교 학생들이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나 과제를 보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 교육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는 것 같았고,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도 궁금해졌다.

그 다음으로 멜버른이 속한 주(州)인 '빅토리아 주'의 빅토리아 교육부를 방문했다. 이곳은 호주에서 방문했던 기관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곳에

서 일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우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상세한 설명을 해 준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 교육에 대하여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빅토리아 주의 전반적인 교육실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정부를 떠나서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체제가 짜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교육에 대한 기관들이 관료제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좋은 교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소통하거나 견제하는 환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도 해마다 시험을 쳐야 하는 등의 교사 교육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교육제도를 도입하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해진 교과서 없이 교사가 원하는 대로 수업을 디자인하는 점, 말하기 시험이나 글쓰기 시험을 실시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평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수학과 같은 과목을 제외하고는 결과 평가를 지양하는 편이며 과정 평가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말하기나 글쓰기 평가를 큰 폭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곳에서는 교사와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대부분 수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교육 제도와 교사에 대한 믿음이 더욱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보고 배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유시간을 제공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오후 시간대에는 자신이 원하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때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대학교로 진학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전문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국가에서도 전문 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학 진학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 대학교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 된다면 여러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벨몬트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벨몬트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제 중·고등학교 교육 환경을 볼 수 있었고, 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의 교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환경이 좋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고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악기나 드라마와 같은 수업을 중요시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학생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 한국어를 잘하기에 물어보니, 방탄소년단의 팬이라고 했다. 해외에 나가서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잘 어울리며 서로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방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 반겨주어서 고맙고 기뻐다.

이후에는 시드니로 가게 되었다. 전공이 국어교육이다 보니, 한국어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드니 한국교육원을 방문하게 되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직접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어 교사 협의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먼 땅에서, 우리말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지

금의 우리나라 될 수 있었고,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관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있는 캔버라 대학교였다. 시드니에서 한참을 이동하여 캔버라에 도착할 수 있었다. 15년밖에 되지 않은 대학이지만 세계의 100대 young university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호주의 모든 학교를 보며 느낀 것이지만, 학교나 교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다. 공부를 더 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캔버라 대학교의 교육학부 부학장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셨다. 무척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다. 부학장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무엇을 배워가고 싶은지, 무엇이 궁금한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다. 우리는 약간 당황하여 모두 주뻔거리고 있었다. 여기에 무엇인가 배우러 온 것이 아니냐며, 질문을 하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좀 더 사전조사를 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캔버라 대학교의 교육학부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실제 경험을 위해 지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학교에 실제로 실습을 나가고,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도 교수방법이나 교수이론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적으로 활용해보는 다양한 실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STEM 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만 떠올랐는데, 유아교육에 STEM을 적용한 예시를 보고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 직접 앱을 개발하는 등 호주에서는 유아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아교육에 열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장애나 인종, 혹은 가족 구성원의 모습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체적으로 호주 교육이 다문화교육과 지속 가능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몸에 스며들도록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고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호주의 대자연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의 편리함을 최소화하여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심지어 쓰레기통도 설치하지 않고 사람들도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모습, 동물과 공존하려는 모습, 모든 물건들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 등에서 호주의 지속가능성교육이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임을 느꼈다. 또한 호주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가는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다문화 교육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열정적인 교사가 되고 싶다고 결론 짓고 싶다. 호주의 교육환경처럼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하고,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며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환경, 다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열정적인 교사가 되고 싶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부터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싶다는 큰 꿈도 생기게 되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너무나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빛나는 별은 길을 찾는 너에게로

김유진(12)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1기 입학생이자 졸업생으로서 반복되는 실패와 도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마음가짐과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솔직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학과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결과 조기졸업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6개월이라는 압박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도 해야 하고, 개론서도 이해해야 하고, 한정된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에서 합격선보다 1점 낮은 점수로 탈락하였습니다.

재수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생각이 '나 이번에는 붙겠는데...'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하겠는데...'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과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개론서의 기본도 충실하지 않은 채 다 아는 척하는 착각을 한 점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아는 척의 차이를 망각한 채 슬럼프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의 취직 소식에 혼자 낙오되었다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저의 마음을 마주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과 모습이 공부의 방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근소한 차이로 또 탈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저에 대한 자존감은 낮아지고, 나의 길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과후 강사 자리를 제안받고 1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심장이 뛰는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2차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방과후 강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원동력이 되어 학생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았던 저는 체력적인 부분의 한계를 느끼며 마지막까지 매진하지 못하여 결국 세 번째로 1차 시험에 탈락하였습니다.

2018년 한해 동안 저는 ‘처음부터 다시’라는 마음으로 개론서 백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아는 개념은 무엇인지, 하루 공부를 돌아보면서 백지에 공부한 내용을 복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공부한 내용인데 조금밖에 복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내가 모르는 내용을 반복하고, 나의 말로 바꾸어 보면서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쓰기 윤리의 요소는 무엇인지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분명 서술형 답안에서 내가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만 봐도 답을 아는 기출문제인 경우 반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답이 달라지는 문학 문제를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혼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차를 붙을 수 있었습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7명이 1차에 합격한 가운데 4명만 뽑는 2차에서 ‘과

연 내가 될까'라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생겨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끝까지 믿어 주셨던 학과 선생님들과 현직 선생님, 부모님의 격려와 피드백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꼭 잡자'라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인문소양 면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도서 5권을 다 읽을 수 있었고, 나만의 수업 실연 시나리오 틀을 계속 수정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 당일 수업시연 문제는 연습했던 방식과는 사뭇 다른 조건에 당황했지만 '모두가 당황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나답게 하자'고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점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소양 면접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해 당황했지만 또 다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웃으면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차를 뒤집어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이 외로울 때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는 학과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시험을 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공부한 것이 결국 헛됨이 없구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학부 수업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맞춘 기입형 문제, 재수 때 공부했던 책에서 보았던 서술형 문제, 결국에는 고생하며 쌓았던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많은 길을 돌아왔지만 이 글을 읽을 수험생들을 분명히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과 도전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박노해 <별은 너에게로> 중에서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라는 구절처럼 여러분들 모두 간절한 꿈을 빛내줄 별을 만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꿈을 잊지 마세요

변지희(12)

합격수기를 쓰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 고민한 결과, 제가 네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했는지 진솔하게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실력을 쌓는 것에 있어서도, 실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원 임용시험의 결정적 요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대하는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초수부터 4수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쳤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학교 4학년인 초수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해로 기억됩니다. 저는 4학년 때 여름 방학 때부터 본격적인 임용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며 공부를 하긴 하였으나, 온전히 공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공부하다가 놀고 싶으면 놀았고 쉬고 싶으면 쉬었습니다. 초수 시절에는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 넣기에도 바빠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안일한 태도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니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면 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막

연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합격선보다 9점이 낮은 점수로 탈락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한 탈락이었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또 올릴 점수가 많다는 생각에 덤덤하게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나의 단점인 게으름을 극복해 보자, 올해 임용 공부를 끝내보자'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혼자서 많은 시간들을 관리하며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앉아있는 것부터 힘들어서 저는 집 근처 독서실 총무로 일하며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했는데, 독서실 카운터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츰 앉아 있는 것에 적응을 한 후부터는 아침 9시까지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총무 일을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가끔 반복되는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독서실에서 알게 된 수학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언니와 임용시험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하였지만 재수 시험에서도 합격선 기준 -1.xx 차이로 탈락하였습니다.

합격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져서 아쉬움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공부하며 수학임용을 준비했던 언니가 대구에서 수석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1년 만에 점수를 많이 올렸기에, 한 번만 더 열심히 간절하게 한다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면서 공부에 대한 의지가 키웠습니다. 저의 삼수 시절은 한마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아침부터 시간을 활용해야 하루를 길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여는 독서실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25분 정도의 거리에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독서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침 7시 즈음에 독서실을 매일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절대 믿지 않았기에, 독서실 내에서 사람들을 탐색하다가 임용 준비하는 분들을 모아서 아침 독서실 출석 체크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출석스터디는 일어났다고 하고 다시 잘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면대면 출석스터디는 무조건 독서실을 와야 하므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스터디 구성원들과 아침 7시30분까지 독서실에 모여 간단히 출석 체크를 하고, 간단한 교육학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공부를 하니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았지만, 어느 순간 집에도 일찍 가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스로가 집에 일찍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카페에서 스터디 구성원을 구하여, 밤 12시에 하는 전화 스터디를 조직했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한 이 스터디는 전화로 주로 문학 작품을 같이 보고 분석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스터디 내용도 도움이 되었지만, 매일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1년 동안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스스로 1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미련이 남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합격선에서 1점 낮은 점수로 1차 시험에 탈락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는 문구를 보았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일년이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은 내가 지난 일 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성장하였는지 판단하기보다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만 보고 나의 과정을 가늠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슬펐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의지도, 체력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기력했습니다.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목적 자체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꿈은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학생

들과 소통하는 교사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사가 되어 하고 싶었던 것보다 임용 시험 자체를 통과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의 끝에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기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자는 생각을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다섯 명의 고3 학생들을 과외하며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임용 공부를 하는 목적이자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기에 합격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격 기준에서 7점이 높은 점수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점수는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점수로 제주 이외의 지역에 응시했어도 수석이나 차석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과연 끝이 있거나 한 것일까,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있었고, 저는 이제 교사로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많은 위로가 되었던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후배 및 동기 수험생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내면의 소중한 꿈을 생각하며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해적이 (2012~18)

- 2011.10.14. 교육과학기술부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신설 승인
(입학정원 20명)
- 2011.10.17. 김지은 교수 국어교육과 개설준비 책임교수 임명
- 2012.2.29. 1기 17명 입학
- 2012.3.1. 김지은 교수 초대 학과장 임명
- 2012.3.7. 1대 학생회장 이신우('12)
- 2012.9.1. 이영호 교수 부임
- 2013.2.1. 2대 학생회장 강미경('12)
- 2013.2.28. 2기 22명 입학
- 2013.3.1. 손예희 교수 부임
- 2013.9.1. 박선우 교수 부임
- 2013.10.2-3. 추계 학술기행 (경상북도 안동)
- 2013.11.13-15. 제1회 돌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4.2.1. 이영호 교수 학과장 임명
3대 학생회장 김유진('12)
- 2014.2.28. 3기 21명 입학
- 2014.9.1. Uliana Kobayakova 교수 부임
- 2014.9.19-20. 추계 학술기행 (전라북도 남원)
- 2014.11.10-11. 제2회 돌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5.2.1. 4대 학생회장 최지혜('13)
- 2015.2.27. 4기 22명 입학, 3학년 3명 편입
- 2015.9.18-19. 추계 학술기행 (경상남도 통영)

- 2015.11.11-12. 제3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6.2.1. 손예희 교수 학과장 임명
 5대 학생회장 구운모('12)
- 2016.2.23. 1회 졸업생 (9명)
- 2016.2.29. 5기 22명 입학, 3학년 1명 편입
- 2016.9.23-24. 추계 학술기행 (충청북도 옥천)
- 2016.11.9-10. 제4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7.2.1 6대 학생회장 윤신철('13)
- 2017.2.21 2회 졸업생 (13명)
- 2017.2.28. 6기 22명 입학
- 2017.9.22-23. 추계 학술기행 (경상남도 남해)
- 2017.11.8-9. 제5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8.2.1 박선우 교수 학과장 임명
 7대 학생회장 양예원('16)
- 2018.2.20 3회 졸업생 (14명)
- 2018.2.28. 7기 22명 입학
- 2018.9.28-29. 추계 학술기행 (경상남도 진주)
- 2018.10.31-11.1 제6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2018학년도 제7기 입학생 명단

강다연, 강병국, 김도아, 김성민, 김은샘, 안시현, 안현선, 유민호, 유선우,
이병진, 이수성, 이수진, 이지혜, 임선우, 정민지, 정승호, 정유진, 주혜원,
최유리, 최은수, 최은지, 최지은 (이상 총 22명)

2019학년도 제4회 졸업생 명단

고윤정, 권류형, 권영은, 김수경, 김은혜, 김하정, 박민영, 박민정, 박수지,
박정봉, 박진희, 안서희, 여우석, 유현지, 윤신철, 이경화, 이나희, 이동욱,
이혜민, 임주용, 정하영, 하은민 (이상 총 22명)

『계명 참길』 제7호 편집위원

정현지('16), 황예서('17), 유선우('18)

계명 참길 제7호

발행일 : 2019년 2월 20일

발행인 : 박 선 우

발행처 :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영암관 328호
Tel : (053) 580-5793

인쇄처 : 영한문화사

Tel : (053) 426-9112, (053) 254-0209

Fax : (053) 421-5982